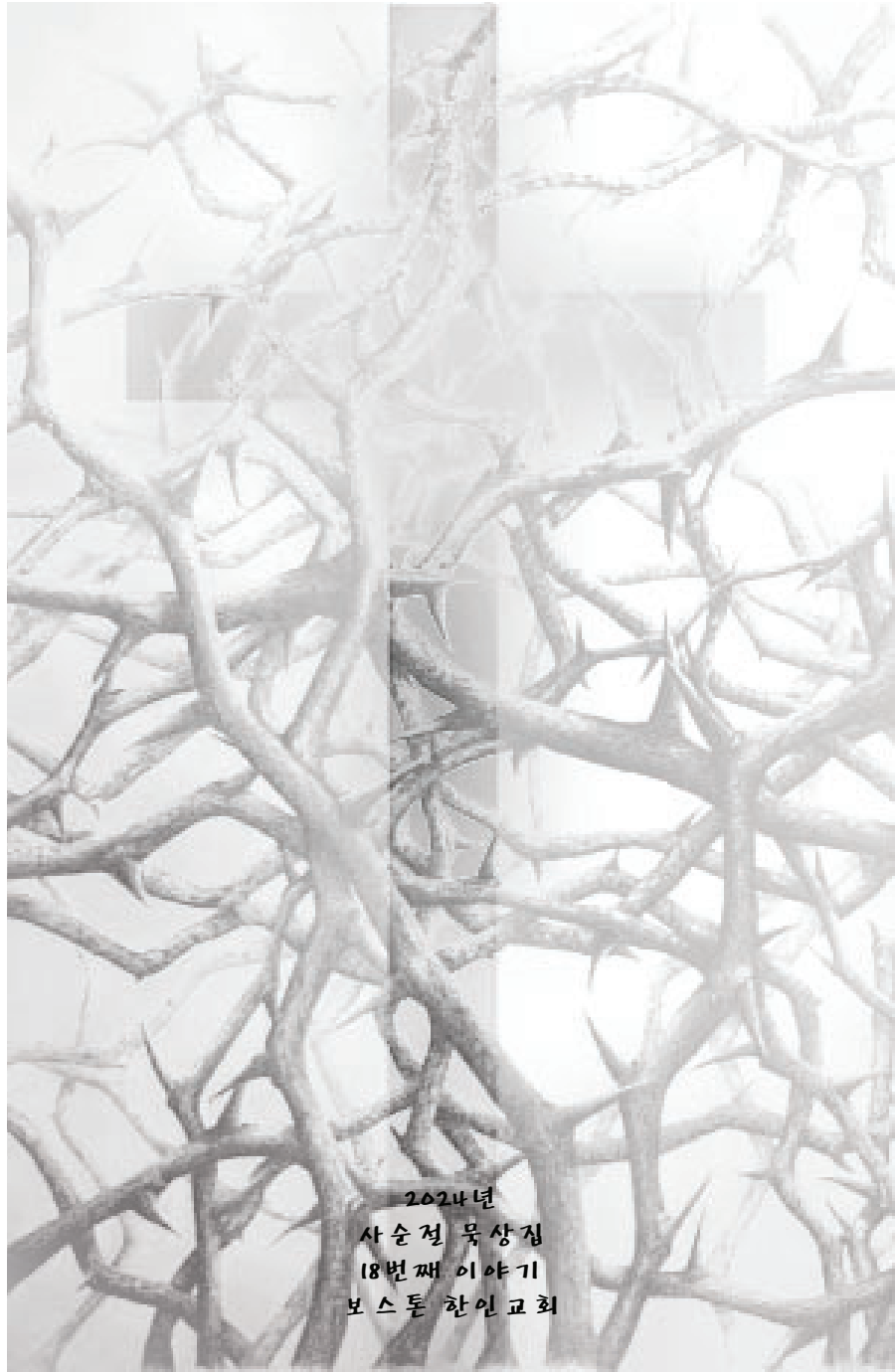


사순절 묵상집

Devotional for Lent & Easter
2024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2024년
사순절 묵상집
18번째 이야기
보스톤 한인교회

2024 사순절 묵상집 목차

이영길 목사	권두언	2
2/14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김(조)옥동 권사	순결한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주소서	3
2/15 (목) 윤병준 집사	하나님을 갈망하기	4
2/16 (금) 김화옥 집사	콤바야 마이 로드	5
2/17 (토) 진정원 집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	6
2/18 사순절 첫째주일 정은택 전도사	유쓰그룹에 보내는 편지	7
2/19 (월) 원영옥 권사	서로 사랑하자	8
2/20 (화) 이에복 교우	이미 주신 것	9
2/21 (수) 안성민 교우	주의 교회	10
2/22 (목) Jack kim	The Lord gives you strength	11
2/23 (금) 김경애 권사/한승희 장로	하나님의 은혜로라	12
2/24 (토) 윤만강 권사	말 들	13
2/25 사순절 둘째주일 박예원 전도사	My Jesus, Love Thee	14-15
2/26 (월) 김형범 은퇴 장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16
2/27 (화) 이정윤 집사	하나님의 사랑은	17
2/28 (수) 양원제 집사	Opportunity	18-19
2/29 (목) 이정호 교우	과학과 믿음	20
3/1 (금) 박영일 은퇴 장로	예배하는 자	21
3/2(토) Elder Sang Kang	Prepare Our Lord's resurrection!	22
3/3 사순절 셋째주일 김정선 은퇴 장로	어느 암환자의 기도와 고백	23
3/4(월) 이소은 집사	하나님의 은혜아래	24
3/5 (화) 김경희 권사	두더지 게임	25
3/6 (수) 강문일 집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6-27
3/7 (목) Phantom Author 1	On the waves	28
3/8 (금) 김연희 집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29
홍예소 어린이 (1학년)	그림묵상	30
한유주 어린이 (5학년)	My thankful journey with God	31
3/9 (토) 윤원길 은퇴 장로	느헤미야 소고	32

3/10 사순절 넷째주일 김문소 은퇴 장로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33
3/11 (월) 이석원 집사	진정한 '회복'	34
3/12 (화) 최학수 집사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35
3/13 (수) Phantom Author 2	How to live	36
3/14 (목) 정광근 장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37
3/15 (금) 손효정 집사	너희들과 함께라면	38
3/16 (토) 권복태 은퇴 장로	느헤미야서를 나누며 드리는 기도	39
3/17 사순절 다섯째주일 김한나 장로	지름길 app (application)	40
3/18 (월) 한 국 교우	그 분이 원하는 섬김	41
3/19 (화) 김영순 권사	크리스마스 저녁에	42-43
3/20 (수) 이주원 집사	어머니 교회	44
3/21 (목) 박영철 은퇴 장로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치유합니다	45
3/22 (금) 정민아 (10학년) 정민우 (6학년)	My Blessed life by Jesus. My Savior Jesus Christ!	46 47
3/23 (토) 이지용 집사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을 산다는 것	48-49
3/24 종려주일/Palm Sunday 조은일 목사	Leave her alone	50-51
3/25 (월) 박신영 장로	하나님과 씨름을	52
3/26 (화) 최현구 장로	적당(適當)히 하면...	53
3/27 (수) 정은아 집사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4-55
3/28 (목) 이장헌 집사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56
3/29 (금) Good Friday 윤헌자 집사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	57
3/30 (토) 김희진 사모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58
3/31 부활주일/Easter 이영길 목사	진주 장사와 부활	59
김은경 선교사	야곱의 축복	60

40일에 담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

정은택 전도사 감사하는 삶	정은택 전도사 평범함의 위대함
Deacon Seung Kim My One Wish	Phantom Author 3 Giving old things up=Adding new things
안성민 교우 주의교회 2	정은택 전도사 배부른 고민



“내가 비마...”

이영길 담임목사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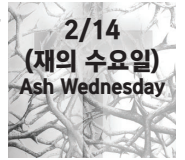
지휘자 레오날드 번스타인이 청소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휘석에서 내려와 자기 방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학생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그래도 각자의 악보가 있고 연습한 것이 있으니 처음에는 잘 화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갈수록 빠격이더니 끝내 연주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번스타인은 도중에 지휘봉을 내려 놓고 연주를 그만 두었을까요? 이유는 학생들에게 지휘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음악인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도 지휘자가 사라지는 순간 훌륭한 연주는 불가능함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두 지휘자를 바라 볼 때 훌륭한 연주가 가능함을 일깨워준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들의 지휘자이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것에 한눈을 팔았던 모습을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본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놀라운 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실 수 밖에 없었을까를 깨닫는 절기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놀라운 오케스트라가 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오케스트라의 멤버는 결코 의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 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회개의 눈물은 각자의 악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순결한 두려움에 떨리는 마음을 주소서 김(조)옥동 권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시편 4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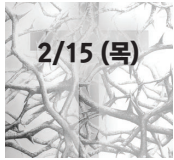
한 눈에 우주를 보시고
단 숨에 영원에서 영원까지 헤아리시는 이가
지축을 돌리시고 천지를 운행하시는 곳
저 구름너머 푸른 하늘 지나
더 높은 거룩한 성을 바라봅니다

이제껏 기다리며 펼치지 못하신 진리를
별과 별 신비로운 언어로 총총히 쓰시고
깨쳐라 머리 숙여 행하라
풀잎보다 연하고 모래알보다 작은 저희를
믿음의 생기 넣어 자녀로 삼아
이 세상 소금이라 빛이라 의의 통로라
보배로운 자들아, 어서 돌아오라
안타깝게 부르시는 온유한 음성이
오늘, 아침 햇살로 퍼집니다

사랑이 온정이 메말라 천사도 떠난 도시
부서진 꿈의 날개, 찢어진 옷자락 흩어진 골목마다
울부짖는 성난 바람은 맵고, 고아같이
외롭고 춥고 배고픈 영혼들 눈비 맞아 쓰러집니다
정지도 경제도 전쟁도, 비옥한 문명이 살릴 수 없는 세상
양심도 가정도 형제까지 돈보다 못한 세상에서
높이 솟은 거리의 십자가 주님의 눈물 젖어 흐릅니다

두렵고 떨리는 순결한 마음을 주소서
애통하며 무릎 꿇게 하소서, 그리하여 정갈해진
손과 손을 잡고 회개하는 뜨거운 눈물의 강
폭포같이 흘러내려 죄악 세상 씻어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밝은 세상으로
주님의 영광만이 오직 영광이 되는 나라가 회복되도록
굳은 땅을 딛고 일어서서, 고통의 십자가를 지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 끝까지, 거기 거룩한 성이 세상이 맞닿은 곳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 뵈게 하옵소서

적극적인 도전적 믿음의 삶 달려 갈 때에 멈추어 잠잠히 기도하며 깨달음을 구하게 하소서. 믿음의 지경 넓혀지고 높아지기 기다리며, 나의 사명을 분별하는 영적 감각을 더하소서,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기

윤병준 집사

2/15 (목)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 (출애굽기 15:11)

이야기 하나. 어떤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놀랄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에 가장 놀라게 될까요?” 설교를 듣던 성도들은 흔히들 농담처럼 하는 말대로 ‘천국에 꼭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이 없어서 놀라고, 절대로 천국에 못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있어서 놀라지 않을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성도들의 대답에 잠시 미소 지은 후에 이어진 선교사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천국에 가서 가장 놀랄만한 것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 주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직접 접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내가 어떻게 그 정도 밖에 사랑하지 못했을까, 내가 이 분을 어떻게 세상의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있었을까?’ 하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답을 듣던 성도들은 순간 숙연해질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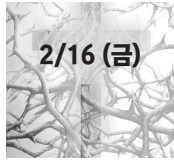
이야기 둘. 또 다른 선교사님이 그 분을 파송하고 후원해준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고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사회를 보시던 분이 선교사님께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동안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선교사님의 가장 큰 바람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선교활동을 보고하는 시간이었던 데다가 이국땅에서 오랜 시간을 선교사로 섬기신 분이었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선교지에 세운 교회가 나날이 부흥하는 것’, ‘그동안의 선교사역들이 풍성히 열매 맺는 것’, 혹은 ‘부족했던 재정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선교활동이 더 왕성히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잠시 생각을 정리하며 머뭇거리셨던 선교사님의 대답은 그 모든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대답을 하기 위해 잠시 목을 가다듬고 나서, 그분은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 선교사님의 ‘대답’에 선교보고회 자리는 눈물 바다가 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2024년 사순절을 맞이하며 지금 나의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그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을 때, 그 분을 마주하고 그 분의 영광을 직접 목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목상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빛나는 영광을 직접 목도할 그 날을 사모합니다. 아멘

쿵바야 마이 로드

김화옥 집사



2/16 (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32)

대학에 막 입학했을 적 선배들이 가르쳐 준 노래였습니다. 곡조가 서늘하고, 처연하기까지 했는데 무슨 뜻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선배들이 가르쳐 준 노래이기에 그저 따라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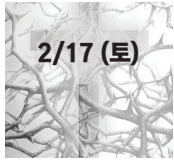
세월이 한참 지난 후 알았습니다. 쿵바야 라는 말이 Come by me (컴 바이 미) 라는 것을. 선교사들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해진 쿵바야는 발음하기가 어려워 컴 바이 미가 쿵바야로 불려졌다 합니다. 주님 오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겠지 짐작해봅니다.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이던 이승만 박사가 가지고 다니며 읽던 성경책은 무척이나 낡았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으로 경무대에 머물던 시기,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와 함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성경읽기를 실천할 적 바로 그 성경책이라 하더군요. 책은 영문판인데, 영어에 자유롭던 책주인의 취향입니다. 이 성경책에는 몇군데 종이 책갈피가 끼워져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KJV) 짐작컨대, 이승만 박사가 하와이에 머물던 시절, 부흥회나 설교시에 자주 인용하던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제 식민지적에 자유와 독립을 간구하는 절절한 기도제목이고, 간절한 소망이었을 겁니다. 정녕 쿵바야, 마이 로드. 쿵바야~ 이겠지요.



저 역시 오래되어 낡은 성경책을 읽고 가지고 다닙니다. 밑줄 쳐진 구절들이 발견되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번 밑줄이 쳐져 있고 메모까지 보이면 더욱 반갑습니다. 다시 읽는 즐거움 역시 더할 나위 없는 겁니다.

굴레에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몸이 자유롭고 마음도 자유로울 테니, 주 안에서 자유를 만끽합니다. 주가 주신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

진정원 집사

2/17 (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8-20)

내게는 특별한 친구가 있다. 물론 그에게는 특별한 습관, 특별한 능력이 있다.

첫째, 그는 성격이 급하다. 다행이도 이 급한 성격이 실행력의 바탕이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주위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면 우선순위를 두고 재빠르게 시작하는 모습 !!!

둘째, 실패하였을 때는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가 자주하는 말 중에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높은 만큼 수익이 높겠지) “Nothing Venture Nothing Have” (모험이 없는 곳엔 이익도 없다) 비록 주님의 대답이 늦어지더라도, 계속되는 실천, 눈물, 재도전으로 기다리는 모습 !!!

셋째, 열심으로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며, 결정한 후에는 앞으로 향한다. “나의 시간을 뺏기느니, 나의 돈을 뺏기는 것이 낫다” 허락하신 하루 시간의 십일조를 민감하게 생각하는 모습 !!!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사순절 시간에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야 할 방향,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본다.

허락하신 2024년 사순절의 시간은 한정적이다. 그러하기에 더욱 더 참으로 가치 있는 일에만 나의 시간이, 우리 모두의 시간이 사용되기를 소망한다. 특별히 남에게 강요하지 않으며, 남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먼저 바꾸려 노력하는 사순절의 매일을 소망해본다.

미국의 동기부여 강연가 토니 로빈스가 한 말 중 “성취도 중요하지만 매 순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결정은 어떤 경우에도 아름다운 상태로 살 것임을 결정하는 것이다”를 생각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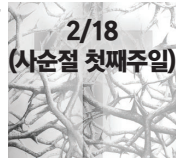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적극 실행하는 일이 더 필요할 듯하다. 살아보니 때로는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실패가 대체로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했지만, 나 자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지 않는 순간도 많았다.

나는 이번 사순절, 나 스스로에게 가장 행복한 선택을 매 순간 하기로 결정해본다! 물론 주님께서 흐뭇해 하시며 웃어주실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매일의 시간안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 내도록 힘주시고 지혜와 큰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아멘

유스그룹에 보내는 편지

정은택 전도사



2/18

(사순절 첫째주일)

“As unknown, and yet well known; as dying, and behold, we live; as chastened, and not killed; as sorrowful, yet always rejoicing; as poor, yet making many rich; as having nothing, and yet possessing all things.” (2 Corinthians 6:9-10)

유스그룹 전도사로 부임하고 나서, 종종 어떤 전도사가 되어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10명 남짓 되는 교회에서 성장했기에, 중고등부를 따로 경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생때 배웠으면 훨씬 더 잘 성장했을 것만 같은 것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전도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다짐을 하다보면 종종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생각나는데요. 이번 기회를 빌려 평소에 묵상하던 내용을 아이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남겨보고자 합니다.

Dear A,
I'm truly joyful to worship and pray with you and serve you as a youth pastor every Sunday. Watching you listen to my sermons attentively and ask various questions about God, I'm grateful to think that God must be happy to see your faith grow. I hope you continue to grow in our community, supported by dedicated teachers who serve you and pray for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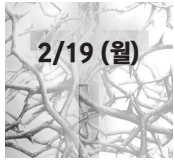
It seems that our society demands us to be a protagonist – a smart, cool, stylish, & influential individual. In fact, it sounds not too bad to follow the trend of being a popular figure. It even sounds so cool, right? Everyone wants to be this kind of person. I, too, am not free from it. However, what we read in the Bible and learn in church seems different, doesn't it? We are taught not to be protagonists but witnesses. We boast not of our greatness but of our weakness and God's faithfulness and goodness in leading us, which enables us to embrace others' weakness, and comfort them. Unfortunately, living as true witnesses might often lead to being ignored by friends and others who don't value what you believe; however, the amazing thing is our life as witnesses will be directly assured by God. Isn't it a more wonderful life than being a protagonist?

Of course, it's not as easy as it sounds. Our fast-changing world is hard to keep up with. We are constantly under pressure to prove ourselves. We struggle to overcome our fears and anxieties of failure. It sometimes feels endless. But don't worry too much. No matter what failures and struggles your face, no matter how harsh and tumultuous the times ahead may be, our church will always be there for you – a place where you can find strength and comfort. Walk confidently in your life's journey, looking up to Jesus, the foundation of our church. This is the confidence we have as believers, the path your parents have walked.

This is my first time expressing these thoughts outside a sermon. It might feel a bit odd, but I hope this letter gives you comfort and courage during your tough times. Trust in God because he grants us miraculous comfort and gratitude in any situations. I cheer for you.

With love and support,
Your Pastor

God, as You have faithfully led us, guide us to live as Your faithful witnesse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서로 사랑하자.

원영옥 권사

2/19 (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 4:8)

할렐루야!

보스톤한인교회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오랜만에 교회를 찾았을 때 남다른 감회로 가슴이 촉촉해졌었다.

첫만남은 교회 입구에서부터 활짝 웃음으로 맞아 주신 정광근 장로님. 교회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영길 목사님이 안부 물어주신다. 1년의 공백이 무색하다. 예배당 안에서 여전히 박신영 장로님께서 반가이 맞아주시고, 본당 정면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늘을 보며 기도하고 계신 나의 그 분, 내가 엄청 사랑하고 또 나를 끄찍히 사랑하시는 그 분... 늘 나를 가득 채우시는, 내 속에 늘 계시지만 보는 순간 얼마나 반가운지...

보스톤한인교회... 그 분의 사랑이 가득한 곳. 언제나 변함없는 그분 때문에 눈물짓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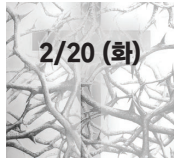
‘서로 사랑하라’고 그분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데 사실 어렵다. ‘마음은 원이로되...’라며 변명만 줄줄이 켜다. 귀한 하이파이브를 가슴에 새겨보며 예배당을 나가려는데 최현구 장로님께서 너무 반가이 맞아 주신다. 찬양 가득 사랑을 믿고서... 마음이 풍성해진다. 김문소 장로님께서 4년전 국내선교 메이트로서 너무 반가이 맞아 주신다. 또 함께 선교로 하나님 사랑 전하자고 하시는데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한가득 밀려온다.

이렇게 보스톤한인교회는 내 영혼의 고향이자 사랑의 고향이고, ‘서로 사랑하라’하신 주님의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곳이다. 그런 사랑의 고향을 품었기에 나는 용기를 내보려한다. 이번 사순절 기간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려한다. 멀리 서울에서 보스톤한인교회를 그리워하며...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의 유전자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발현되게 하소서 아멘

이미 주신 것

이예복 교우



2/20 (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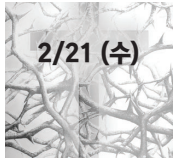
오늘은 보스톤 땅에서 남편과 떨어져 처음으로 혼자 생활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 나름 즐겁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더 늦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미국 유학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2023년 1월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는 낯선 땅에서 패기 있게 서툰 미국생활을 뼈저리게 시작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매일이 새롭고 다이내믹 할 줄로만 알았던 미국생활은 한국에 두고 온 남편과 가족 생각, 혼자라는 외로움, 꽤 늦은 시기에 다시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늘 서러운 눈물을 가득 담아, ‘외로움과 걱정과 염려를 씻어달라’, ‘나와 함께 해 달라’, ‘이곳으로 보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는 청일거림에 가까운 기도를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새해를 시작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던 중, ‘나는 너가 구하고 있는 걸 이미 다 봤는데? 나는 계속 네 옆에 있었는데?’라는 반문으로 응답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준 선물이나 베푼 정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하거나 깜빡했을 때 서운한 감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늘 저에게 필요한 것을 저의 필요보다 더 이전에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주님이 저의 이런 조급함과 갈망과 불만 섞인 기도를 들으셨을 때 퍽 서운하고 안타까우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보니 보스톤에서의 1년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영적인 리더와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낯선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호의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인생에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은혜이자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며 늘 함께하셨는데, 크고 작은 감정들과 당장 눈앞의 상황에 가려 그분의 따뜻하고 평안한 돌보심을 잘 느끼지 못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는 나의 기도가 반복적인 습관이 아닌, 진정성 가득한 체험과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삶의 매 순간에서 넉넉하게 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민감하게 느끼고,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영적 근육을 단련해야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할 그 무궁무진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길러야겠습니다.

주님,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따라하는 기도’ 중에서



주의 교회

안성민 교우

2/21 (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13)

어쩌다 보니 약 8년 전인, 제가 대학교 1학년이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때처럼 나무로 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학교 캠퍼스를 걸어 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날 수업을 마쳤거나, 점심을 먹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걸음 정도 앞에서 저보다 약 5살 정도 형일 것 같은 분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도 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얘기를 해보니 제 십자가 목걸이를 보고 같이 성경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며 제 경계를 낮추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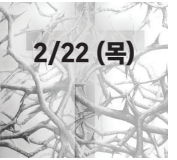
매주 한 번씩 만나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서너 주가 지나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로 들어갈 때에 저를 환영하고 제가 많이 존경했던 형이 이 사람과 같은 곳을 다닌다는 걸 알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 켠이 불편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 그들의 예배를 참석해봤습니다. 다른 대학 캠퍼스 강의실에 모여, 다 둘러 앉아 몇 찬양을 한 후, 목회자인 듯한 분이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 후, 제가 이 교회를 떠나게 된 마지막 이유가 된 순서를 목격했습니다. 서로 둘러서, 서로한테 잘못된 일에 대해 나누면서 눈물을 흘리는 고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 둘 사이에서만 일어나고 그 둘 사이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임에도 무조건 고백을 해야 했고, 무조건 용서를 해야 했습니다. 이 예배 도중, 성령의 움직임은 (적어도 저한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성경공부는 성령이 이끄는 성경공부가 아닌, 한 리더가 그 단체의 믿음을 성경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건 단순했습니다 -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이며, 그들의 교회만이 “참” 교회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주”의 교회가 아닌, 자신들의 거룩함과 교회의 굳건함과 서로 간의 통제와 압박이 있는 “교회주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린 무슨 주의 교회인지, 생각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온 맘 다해 신실한 주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이끌어주시옵소서. 아멘.

The Lord gives you strength. Jack Kim (11th grade)



2/22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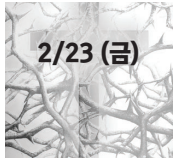
“Behold, God is my salvation; I will trust, and will not be afraid; for the Lord God is my strength and my song, and he has become my salvation. With joy you will draw water from the wells of salvation. And you will say in that day: ‘Give thanks to the Lord, call upon his name, make known his deeds among the peoples, proclaim that his name is exalted.’” (Isaiah 12:2-3)

In the last few months, I've committed more to building a relationship with God. My whole life, I didn't care much about being a good Christian, but after learning a little about what it truly entails, I wanted to focus on improving that aspect of my life so that I could become a better person for myself, my family, and my friends. I started reading the Bible, putting more effort into my prayers, and being grateful for the stuff I have. I started to trust in his plan and accept that God gave me my problems to learn from and overcome. I started to put God first, ahead of all my other endeavors.

As a result, basically nothing has changed. Nothing except for one thing. I did not suddenly become a saint, make more money, lift more weight, get better grades, become happy about having to ski every weekend, or like the things I hate, but I was able to accept that most things will work out in the end with God, and with that acceptance, I have been able to motivate myself to work harder to achieve those things under the idea that even if I try and fail, it'll probably be fine, so I might as well try.

This Lent, I want to remember that the Lord provides strength when we give up whatever we do for the 40 days. As said in the verse above, God wants us to draw from his well of salvation and give thanks for it. His well is open for everybody who's grateful for what he gives us.

Dear Lord, Please give us the humility to give thanks for all of your good deeds and allow us to come to your well and draw from your strength. In Jesus' name we pray, Amen.



하나님의 은혜로라

김경애 권사 / 한승희 장로

2/23 (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10)

2023년은 우리들의 어머니 교회인 보스톤한인교회가 창립70주년을 맞이한 해이다. 특별히 우리 부부에게 2023년은 결혼 50주년을 기념하는 희년의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아울러, 본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의 해인 1973년 6월에 신혼부부로 함께 시작했던 찬양대의 50여 년의 봉사를 마치고 은퇴하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해이기도 하다. 찬양대에서 은퇴하는 12월31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부부가 헌금송으로 불렀던 2중창 곡, “주는 나의 목자 (The Lord is my Shepherd),”는 늘 애송하는 시편23편이자 우리 부부의 신앙 고백을 담은 곡이다. 찬양대원으로서의 마지막 예배에 우리 부부의 신앙 고백을 찬양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은퇴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린다.

돌이켜 보니, 지난 50년의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반세기를 계속하여 한 교회, 한 찬양대에서 부부가 함께 찬양대원으로 봉사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과 믿음과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 했으리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 하는 것 (To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라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Westminster Catechism) 문답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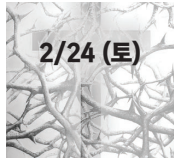
우리 부부의 경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악을 사랑하고 노래할 수 있는 талан트를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 주일 봉사하는 삶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주일이 되면, 예배 시작 한 시간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주일 예배 때 부를 찬양곡을 연습하고, 예배시간에 찬양대석에 앉아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은혜의 시간들이었는지...

최근에 유튜브에서 들었던 손경민 작곡/작사의 “주의 은혜라”의 가사가 우리 가슴에 깊이 와 닿았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 보니, 짧은 내 인생 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 함이 없는 사랑. 달려 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참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대신 잘 표현해 주는 가사이다.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우리들의 대답은 오직 한 가지, “네, 보스톤한인교회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이리라.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말들

윤만강 권사



2/24 (토)

“또 무엇을 하던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골로새서 3:17)

2023 년도에 매달 암송했던 성경구절은 내 마음의 은행잔고를 높여 주었다. 기도 때 마다 고집어 내어 잘 사용하고 있다.

이 노년에 생각해 보니 나는 참 많은 말들을 하고 또 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고 있음이 신기하다.

지난 세월에 아직도 생각나는 들은 말들 중에 몇 가지를 기억해 본다.

“추운 날 밖에 나가 장작을 패세요. 그러면 곧 훈훈해 집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만 말고, 내가 쪼개어 읽으며 깊이 묵상하라고 늘 말씀하신 목사님은 지금 90세가 넘어서도 그런 자세로 살고 있는 것 같다.

“다 못쓰고 죽어요”. 입버릇처럼 늘 이 말을 하던 그 당시 젊은 목사님이 생각난다. 자신은 아직도 가난한 신학생이었는데.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 부흥회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다. “까마귀가 날아가며 내 머리에 똥을 싣다 하더라도, 내 머리에 등지를 틀고 알을 낳게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목사님은 중국의 가난한 시골 선교사 시절 때부터 목회의 자리까지 매사에 해석을 잘 하셨다. 그래서 항상 푸근하고 유머(humor)가 넘치셨나 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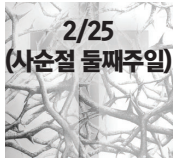
“주님 곧 오십니다”. 불편한 몸이지만 교회출석은 물론이고, 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고 다니시는 권사님의 용기와 확신이 부럽다. 나도 주님이 곧 오실 것으로 믿어지는데—.

“Hardware는 그래도 잘 됐는데 이제는 software쪽으로 잘 해야 되지요” 입버릇처럼 이 말을 하신 선교사님이 교사들을 위한 귀한 교재를 미국교회를 통해 찾았다고 기뻐하셨다. 그 무거운 교재를 들고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들어가셨다. Software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

“오셔서 꼭 쉬고 가세요”. 바로 얼마 전 우리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그러셨다. 가서 한번 꼭 쉬고 싶어졌다. 이 선교사님은 꼭 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 같았다.

이런 멋있는 말들을 해주신 분들께 참 감사하다. 우리교회의 교육부 위원들께도 감사하다. 말씀을 외워라, 읽어라, 공부해라 또 이렇게 글로 쓰라고 하시니 감사하다. 학교공부는 죽어라 싫어했지만, 교회공부는 잘 해보고 싶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목상이 주님께 열납되게 도와 주소서. 아멘.



My Jesus, Love Thee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박예원 전도사

“When they had finished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lambs.” A secon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Tend my sheep.”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felt hurt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Very truly, I tell you, when you were younger, you used to fasten your own belt and to go wherever you wished. But when you grow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fasten a belt around you and take you where you do not wish to go.” (He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he would glorify God.) After this he said to him, “Follow me.”” (John 21:15-19)

“Yewon, I recognize your passion and vision for humanity through theology. However, what about the practical aspects, like finances? I’m genuinely concerned about your real-life situation.” It was during the summer when my friend expressed her deepest concerns about me. We had navigated one of life’s most challenging seasons together – the college entrance process in Korea.

I recall the fragrance of anticipating spring as winter faded away. I visited the prayer house with the intent of centering my focus on God, especially as I faced the decision about which college to attend. There, I encountered a slogan from a seminary: ‘Feed my lambs.’ At that moment, I was in the midst of praying about whether I should follow my father’s sudden suggestion to attend the seminary. The slogan placed a burden on my shoulders, and my initial response was, ‘No, I cannot. I am not someone who can follow in my grandparents’ and parents’ footsteps.’ Nevertheless, through various channels, God reassured me that I needed to pursue admission to the seminary, a path I had never considered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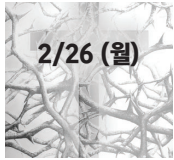
My school life as a theological student unfolded in a way that differed from my expectations. The more I delved into theology, the more I felt a sense of disorientation. I questioned what practical impact theological theories could have in aiding those in need, drawing inspiration from my grandparents’ compassionate actions. My once strong determination to become a Christian leader began to waver, and at times, I wished to escape, reluctant to confront my calling, reminiscent of Jonah.

However, in the transformative experience of 2017, I discovered a newfound strength that fueled boundless love and confidence. This empowerment led me to recognize my true vocation—love. Upon my return to the theological school, I encountered a slogan at the entrance that posed a profound question: ‘Do you love me?’ Without hesitation, I couldn’t help but respond, ‘Yes, I do.’

From the scripture John 21:15-19, Jesus asked Simon Peter three times, ‘do you love me?’. When we reflect on the ministries entrusted to us for the kingdom of God, they often seem burdensome and overwhelming, leading us to moments of wanting to reject and avoid them. The challenges of the path of the cross may evoke a desire to pause or flee. However, God patiently awaits us, touches our hearts, and empowers us to respond willingly, declaring, ‘God, I love you.’ In these moments, the Lord instructs us to care for the sheep entrusted to us, revealing that this is how we express our love for God.



Dear God, Creator of the world through your hands, words, and love, you know me better than anyone else. I bring my life before you, even when I question and doubt the duration of my journey, feeling so weary that the thought of quitting crosses my mind. Please grant me the strength to persevere. Moreover, bestow upon us the courage to love, the wisdom to find hope in difficulties, and words that liberate us from fear and uncertainty. May we, in this way, become your holy children, bringing joy and glory to you. Thanks for allowing me to confess that I love you more than anyt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김형범 은퇴 장로

2/26 (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편 138:1)

노예들이 합창이라니? 제창도 아니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원제: Va pensiero 날아라, 내 마음이며, 금빛 날개를 타고)은 이탈리아의 작곡가 Verdi의 오페라 “나부코” 3막 마지막에 나오는 유명한 합창곡이다. Verdi가 성경을 토대로 작곡한 이 가극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바빌론의 왕 느브갓네살의 이탈리아식 이름인 나부코도노소르를 줄여 ‘나부코 (Nabucco)’라 부른다. 만딸이자 나부코의 입양딸인 아비가일레 (Abigaille)의 쿠테타로 둘째딸 (친 딸) 페네나 (Fenena)를 포함한 히브리 노예들이 학살되기 전에 부르는 노래인데, 장조의 곡임에도 불구하고 노예들의 슬픔을 가득 머금은 멜로디와 가사가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게 한다. 합창이 끝난 후 관객들의 정적이 마치 음악의 일부인 듯 스며들게 만드는 이 합창곡은 나부코의 하이라이트이다.

Metropolitan Opera의 공연 작품, 국내외의 여러 합창단의 합창, 교회 찬양대의 연주, 심지어 현금송에서 까지 듣게 되는 이 합창곡은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연주된 적이 있다. 나에게 전율을 선사했던 정명훈이 이끄는 어느 외국 합창단의 연주는 아직도 귓가에 여운을 맴돌게 한다. 모세를 위시하여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여러 번 반복하여 경고하였으나, 여호와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노예생활을 한다. 70년이 지나야 풀려나리라는 예언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침도 배움도 없었기에 그들의 노예생활은 더 힘들고 고된 삶의 연속이었으며 희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무의미한 하루하루였으리라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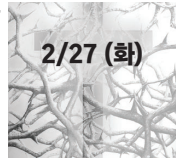
여기서 학교 교육, 가정 교육, 사회 교육 3가지 중에 ‘3세대를 통한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다. 아버지 [1세대] 아들[2세대] 손자[3세대]는 세월이 지나며 세대들이 바뀌지만, 계속 연이어 우리의 주와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후세대에 알려주어 이 믿음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한다.

우리의 후손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처절한 노예의 노래를 부르며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권리,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믿음 생활을 지켜야한다. 이번 사순절 기간, 어쩌면 소홀하고 단절되어 있던 세대 간의 여호와의 말씀을 통한 가르침과 소통을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며 답을 구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

우리 1세는 2세에게, 2세는 3세에게 올바른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순환이 거듭되는 세대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정윤 집사



2/27 (화)

“하나님이 세상을 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이다” (요한복음 3:16)

3살짜리 아들이 주기도문보다도 먼저 암송한 첫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독생자가 무슨 뜻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알 리가 없는 3살이 썸플라워 예배 때 점점 빨라지는 템포에 맞추어 이 말씀을 신나게도 찬양한다. 집에 돌아와서도 흥얼거린다. 그 모습을 보고있노라면 가슴이 먹먹하게 떨려온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 중엔 아직 출산은 커녕 결혼도 안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내가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수도 없이 질문을 받는다. 그 중에선 “아기 키우는 거 어때? 추천이야 비추천이야?”와 비슷한 류의 질문이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럼 나는 대답한다. “세상 그 어떤 행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고 행복한만큼 두렵기도 해. 근데 배우자 기도나 먼저 해라 친구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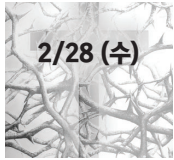
아기를 키우는 일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하나뿐인 보석을 손에 꼭 쥐고 있는 일 같다. 그 보석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벽차게 행복하고 너무나도 귀해서 행여나 흠이 나거나 빛을 잃거나 깨지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고 두렵다. 그래서 내 손의 힘을 풀고 보석을 하나님께 내맡겨야 한다. 오늘 아침 내게 육아할 수 있는 새 힘을 부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 아기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드는 하루를 허락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눈에 넣어도 안아플 것 같은 이 귀한 보석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오늘도 되새긴다. 그러면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가신다.

하나님께선 그런 보석같은 귀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하시므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큰 사랑에 이보다 더 확실한 설명이 어디있겠는가. 그 이상의 사랑은 없다. 우리 또한 그분의 자녀라는 확증이나 다름없다. 나에게 내 자식들을 희생시켜 대신 구원 할만한 어떤 것이 절대 떠오르지 않기에. 하나님 그 사랑의 크기를 감히 가늠해 느껴본다. 그리고 그 사랑에 오늘 하루도 나는 넘치게 든든하고 행복하다.

엄마가 되고 나서야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 행복했고 나의 자만을 고백했다. 유산의 위험과 힘들었던 출산 앞에서 죄인으로 앞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약한 나로 다시 섰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었다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저 나를 쓰신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신앙적으로 방향하며 힘들어했던 날들에도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셨음을 깨달았고, 그 사랑에 더이상 사춘기 자녀처럼 방향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3살과 2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주님을 붙잡는다. 눈을 질끈 감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도 있고 마음 속으로 외칠 때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소리내어 기도할 때도 있다. 화가 나있거나 피곤하거나 불안하다가도 아멘! 하고나면 새 힘이 솟는다. 내 힘으로 아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의심없고 흔들림 없는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 주는 것이다. 그리하면 넘어지더라도 일어설 것이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임을 완전히 믿기에..

주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하루를 행복과 감사로 채웁니다. 아멘



2/28 (수)

Opportunity

양원제 집사

“But truly God has listened; he has attended to the voice of my prayer.” (Psalm 66:19)

I always believed that gifts handed on a silver platter are short lasting and can be taken away just as easily as they were given. Even when I was young, I truly believed that there are no freebies in life and everything should be earned. This was especially hard for me when I was young because my youth group pastor and bible study teachers always told us to pray to God for what we need and He will answer. This idea of “ask and you shall receive” was so foreign to me. While I did not challenge my pastor and teachers on this matter, I always hoped for a clear explanation.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he prayed for courage, does God give him courage, or does he give hi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ed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This is a quote from Evan Almighty, one of my favorite childhood movies. The scene comes from towards the end of the movie where God, disguised as a waiter, comes to talk to Evan’s wife, who left Evan with her children in belief that her husband had gone mad in his absolute pursuit of building an arc. God explains to her that God listens and answers people’s prayers not by giving them what they want out right but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them to seek whatever it is that they are praying for.

While I have yet to find a supporting biblical verse to acknowledge that God listens and answers our prayers in the manner described in this scene, it is one of those “ah-ha” moments that really struck with me. I was in eighth grade when I watched this movie and this movie, and specifically this scene, changed the way I pray to God entirely. Prior, I had always just simply prayed for things. I prayed to help me get a good grade on my exams; I prayed to help me get really good at soccer; I prayed that I will be able to go to church more diligently. Soon after watching this movie, I prayed for more opportunities to help me study for my exams; I prayed for more opportunities to help me improve my soccer skills; I prayed for more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my church and find a way for me to serve. And it work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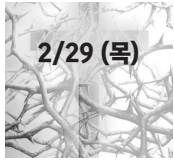
The idea of praying for opportunities rather than direct outcomes shifts the focus from passive reception to active participation. Instead of asking for the end product, one seeks the means and the wisdom to achieve it. For instance, I used to pray for good health, but now I pray for the opportunity to learn and apply healthy habits and live a more balanced lifestyle. This approach not only reinforces personal responsibility but also acknowledges the unpredictable nature of life, where outcomes are not always directly under our control.

Moreover, seeking opportunities through prayer also balances God’s guidance with our efforts. It recognizes God’s guidance in opening doors and providing paths, but equally emphasizes our responsibility to walk through these doors and tread these paths. As I mentioned earlier, nothing is free and everything must be earned. This partnership between God’s providence and our actions can be more empowering and honest than solely relying on God’s intervention for unearned specific outcomes.

Praying for opportunities rather than tangible things offers a more dynamic and proactive approach to prayer. It encouraged me to be active participants in my life journey, co-creating my path with God’s guidance. I hope that doing so will help you in your journey with God as well!



Dear Lord, I pray for more opportunities for our congregation to serve you, our community, and each other. Amen



과학과 믿음

이정호 교우

2/29 (목)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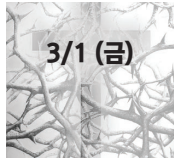
과학이라는 말은 믿음의 반대말처럼 쓰이는 경우를 가끔씩 보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보다 과학을 믿는 선택을 하는 이들이 많아져갔지요. 저는 학창시절 과학을 좋아했고 그 중에서도 유독 물리학을 좋아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법칙과 질서를 이해하는 듯 했으니깐요. 하나님을 알기 전, 과학은 제게 이러한 우월감을 주기도 했고 또 반대로 세상의 허망함을 느끼게도 해주었습니다. 한 과학시간을 통해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우리 몸 또한 원자로 이루어져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원자의 구조를 살펴보니 가운데 원자의 핵이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형태더군요. 원자의 구성성분인 원자핵 (1~15 fm) 과 전자의 크기를 배웠지만 워낙 생소한 숫자라 이를 가능해 보고자 제가 아는 사물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서울의 잠실 경기장을 원자라 하면 그 중앙에 겨자씨 보다도 작은 것(원자핵) 하나를 두고 경기장 트랙으로 먼지보다도 더 작은 것(전자)이 돌고있는 형상이었습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원자핵을 체육관의 짐볼 (1 m^3) 정도라 하면 원자는 태양계의 크기만하더군요. 그 작은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간은 텅 비어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이러한 원자로 구성된 우리는 마치 허공과도 같은 존재라 인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는 이러한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 중 하나로 자신을 허공과 같은 존재로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그저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를 2005년 겨울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믿게 해주신 후 저의 모든 시야는 바뀌게 됩니다. 허공과 같다고 느꼈던 몸은 성령이 가득한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허무하다고 느꼈던 삶은 주님께 맡겨진 의미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과학 분야에 머물며 20여 년간 계속 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동안 믿음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세계를 더욱 들여다 볼 수 있었고 믿을 수 없으니 만큼 정교한 하나님의 질서 세계를 깨달으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믿음은 더욱 커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게 과학은 하나님의 비밀을 조금 더 들춰볼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도 때때로 넘어지고 믿음없는 나약한 소리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으신 주님이 인도하실 2024년을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천하 만물을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아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제 안에도 차고 흘러넘쳐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세요. 아멘

예배하는 자

박영일 은퇴 장로



3/1 (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영광과 감사를 돌릴 때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49: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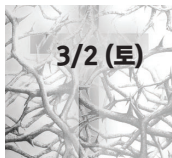
이 장면은 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찬송함으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높여 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십사 장로들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창조의 목적을 밝히셨고, 시편 115장 17절 에서는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라고 율어 생명이 있는 자,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만이 찬양을 드릴 수 있다고 하셨으며, 시편 마지막장 마지막 절에서는 결론적으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꿈꾸고, 그 꿈을 위해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라고 고백한 전도서 기자의 독백처럼 우리들이 그 헛된 것을 쫓아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무상함이 또 한번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한 순간도 바쁘지 않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현실은 당신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예배를 준비하는 귀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60년 70년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더 인생의 마지막장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드림에 박차를 가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장을 걷는 우리에게 버릴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뜻을 다시 한번 깊게 찾아 보는 일들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슬픔에 쌓여있는 자에게는 위로의 찬양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수 많은 이웃들에게는 축복의 찬양을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피조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3/2 (토)

Prepare Our Lord's resurrection!

Elder Sang Kang

“For even as the body is one and yet has many members, and all the members of the body, though they are many, are one body, so also is Christ.” (1 Corinthians 12:12)

In this season of Lent, I usually think about how I would prepare for celebrating Our Lord's resurrection in Easter. In the past I had done some practices such as not watching sports on TV or not eating chocolate, or not doing other unhealthy habits I have during the lent. Give-up for Lent practice for 40 days was not easy, but I felt some accomplishments at the end. Indeed, I thought that it would help my spiritual practices to get closer to God. I am not doing those practices during Lent this year because I am getting a little older and I am questioning whether those practices really help me to have a deeper faith in God. But if anyone wants these practices, I say go for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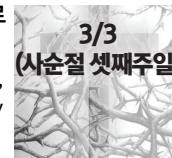
I feel that we should remember Jesus' coming (Christmas) and Jesus' resurrection (Easter) every Sunday worship service. With that mindset I lose some special feelings about these holy holidays, but by going through this season of Lent, we can examine our faith journey and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people around us.

It is somewhat difficult to live as a Christian in this sinful world with so much conflicts and bad temptations. That's why a Christian community like our church is so critical in order to live our faith and keep accountable for our actions. I have been a part of KCB since 1986 and those years have been a blessing to me and my family. I have met so many good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Even during struggling years of KCB, members of congregation have helped me grow in faith. I am not trying to be corny, but I am so grateful for past and present people in our church because they helped me to be molded as a Christian. I have been encouraged, challenged, comforted, and corrected throughout several decades. Of course, I can use more adjectives to express my appreciation for KCB congregation.

Lord, please help me to spend the days of Lent wisely so I can remember your resurrection and appreciate more of what the resurrection means to me and my faith. Amen

어느 암환자의 기도와 고백

김정선 은퇴 장로



3/3
(사순절 셋째주일)

“Jes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disease and sickness among the people.” (Matthew 4:23)

병명은 Cholangiocarcinoma, 길어야 2년을 산다는 시한부 삶. 지난 2년간 항암 키모와 방사능 치료를 계속 받고 조금 쉬었다 2차 키모를 시작했다. 항암제의 부작용으로 몸이 무겁고 아프지만 오늘 아침도 기도와 고백을 하며 하얀 눈발이 날리는 하얀 겨울 하늘을 올려다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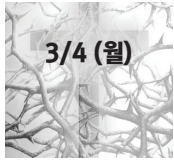
오늘 하루도 영혼이 더 맑아지기를 기도한다. 이제 제한된 귀한 시간 속에 할 일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뒤를 돌아보니 온통 누추한 나의 살아온 모습이 보인다. 세상 죄로 범벅이 된 흉터가 남은 시간에 쫓겨 온 나의 치진 모습이다. 그래도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다. 더 이상 변명은 안해도 되는 보혈의 구원이 내 영혼을 달랜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특별히 나의 병치유를 위해 몸으로 희생하는 내조자, 가족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신앙의 선배님들, 후배님들, 친구분들, Dana Farber Cancer Institute의 의료진들 한분씩 생각해 보며 감사드린다. 또 나와 같이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 기도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암환자에게 몇기냐고는 묻지 말아 주세요.”

삶이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하며 주위를 돌아보니 많은게 쓰레기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 버리며 살고 있지만 아직도 한참 버려야 한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손끝 발끝의 신경이 붓고 아프다. 용감하게 그동안 놓았던 유화 붓을 다시 들었다. 우리 교회 Sanctuary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그려본다. 그림이 좀 모이면 Cholangiocarcinoma Cancer Research Fundraising전시회를 열어, Dana Farber Cancer Institute에 Donation을 하려 한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달려가겠지만, 치유의 역사로, Cancer Survivor로 살아 남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 제 영혼을 맑게 하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에 늦지 않으려고

이소은 집사

3/4 (월)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로마서 6:14)

눈을 감고 상상을 합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뛰어갑니다. 세상은 다 검은색이고 하나님은 큰 얼굴로 하늘에서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저는 하나님 얼굴을 뵈면 면목이 없어 얼굴을 가리고 또 자세를 바꾸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내 속을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뛰어 도망가는데, 아무리 멀리 뛰어 도망갔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로 제 머리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십니다. 급기야 하나님이 나 좀 모르는 척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속에 죄를 안 보셨으면 나를 모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합니다. 마음이 타들어가고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 곳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지.... 창피하고 죄송하고...’ 계속 그렇게 정죄감에 싸여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내어 주어 내가 내 얼굴을 맘 편히 보게 해 주겠다.’ 믿어지지도 않고, 뭐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나같은 인간을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지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감사하다고 울게 됩니다. 세상 법은 용서가 없고, 규칙만 여겨도 질타를 받는데, 내가 은혜 아래 있는게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할수록 정말 세상 이치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죄가 주관하는 영역 하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죄로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죄의 노예는 죄가 시키는대로 복종할 뿐입니다. 죄가 죽을 몸에 왕노릇하려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는 자는 “죄가 주관치 못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뿐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단의 모든 것을 사망까지도 딛고 부활하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 성령님의 가르침이 오늘 죄 아래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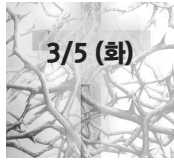
은혜 아래 살게되니 다른 사람이 예뻐보입니다. 나보다 남이 낫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단점보다 장점이 더 부각되어 보입니다. 배울 점만 보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에게도 같이 헌신하자고 하면 그 친구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만져놓으셔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전에 죄 아래 살 때는 느끼지 못한 자유함과 담대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에 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죄인인 제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그 밝은 빛을 제게 비추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두더지 게임

김경희 권사



3/5 (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1-2)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주 가끔 오락실에 같이 갈 기회가 있었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오락실에는 '두더지 게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나는 그 게임을 즐겼다. 2-3분의 제한 시간 내에 9개의 구멍에서 무작위로 갑.특.튀(갑자기 특 튀어나오는)하는 두더지의 머리를 구멍 안으로 다시 들어가기 전에 고무 망치로 내리치면 된다. 경우에 따라 한번에 한마리가 아닌 2-3마리가 동시에 튀어 나온다. 고득점을 위해선 빠른 반사신경과 이를 받쳐주는 빠른 손놀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임이었다. 우리의 삶에서도 무작위로 한꺼번에 걱정거리들과 고난들이 게임 속의 두더지들처럼 들이닥칠 때가 가끔 있다. 그럴 때마다 게임에서 두더지를 잡듯이 재빨리 해야 할 몸놀림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럴 때에 태산처럼 커보였던 시련은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빠르게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기보다 갑자기 닦친 두려움이나 고난으로 어쩔줄 몰라 골머리를 먼저 앓았던 순간들이 많았다. 이제 내 나이 육십을 훌쩍 넘기고보니 지나온 날들을 교훈삼아 앞으로 달려가야 할 나의 끝인 지점까지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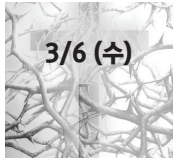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8-11)

바울 사도는 자신의 주위에 넘치는 위협과 위험 속에서도 연약한 자신 안에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다는 그 특권 때문에 죽음의 위험과 같은 육체의 고난 속에서도 '부활'을 바라보는 놀라운 신앙의 본을 보여 주고 있다.

살아오면서 백기를 꺼내들고 주저앉고 싶은 유혹을 느꼈던 많은 순간들, 기껏 나를 위한 나의 작은 삶에게 항복하고 싶어했던 나의 모습들이 떠오르면서 내가 그동안 '어려움' 혹은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의 약한 믿음에서 비롯되었음을 절실히 깨닫는다.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건너 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쓰기도 하지만, 그 길을 지나지 않고는 소망을 얻을 수 없다. 어떤 아픔도 기도로 승화하지 않고서는 상처가 싸매어질 수가 없다는 힘든 진실을 성경말씀을 통해 나에게 수차례 일깨워 주신다.

모래시계 속의 모래알들처럼 견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시간, 결코 닦지는대로 살아서는 안되는 시간이 휘~익 휘~익 바람처럼 이 순간에도 나를 스쳐 지나가고 있다. 멀지 않은 끝인 지점을 향한 이 인생의 경주에서도 내가 높은 점수(승리)를 얻으려면 예민한 영감과 이를 받쳐주는 믿음의 삶뿐이다. 내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또 고난들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갑.특.튀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나는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오늘'이라는 이 지점에서 뒤 돌아보니 내가 달려왔던 길 위에 아버지의 '은혜'가 꽃처럼 가득 피어 있습니다. 또 지금 주님께서 제게 신겨 주신 이 은혜의 신발에 내 몸을 담고 두려움을 가로 지르고, 희미한 내일을 뚫고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끝인 지점에서 기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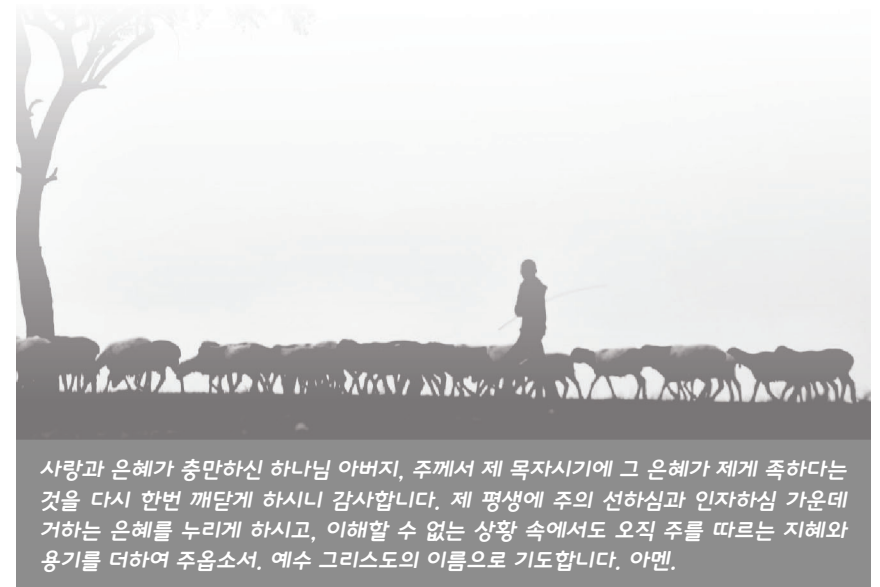
강문일 집사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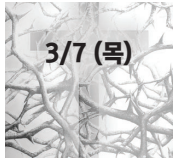
요즘은 아무도 취미를 묻지 않지만, 내가 국민학교에 입학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누구나 취미를 물었다.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면 같은 반 친구들이 취미를 물었고, 매 학기 자리를 바꿀 때마다 짝꿍은 내 취미를 물었으며, 심지어 교실 뒤편에 걸려 있던 앙케이트 노트의 단골 문항조차 취미를 물었다. 딱히 창의적이지도, 모험적이지도 않던 나에게 “책 읽기”는 취미 활동란을 채우기에 그럴싸한 답안이 되어 주었고, 누군가 물을 때마다 내 취미는 책 읽기라 주장하다 보니 어느새 나는 책 읽기에 익숙한 사람으로 거듭나 있었다. 국민학생 때는 병아리 키우거나 과학 상자, 악기 연주와 같이 독창적인 취미를 가진 친구들이 그렇게 특별해 보일 수가 없었다. 한때는 나도 비범한 첫인상을 남길 만큼 스펙타클한 취미 하나쯤 가지고 싶었던 적이 있었지만, 의외로 모든 면에서 한결같은 나는 삼십 여 년째 취미 부자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 내 취미는 여전히 책 읽기이고, 하나님을 덧붙이자면 달리기도 있겠으나, 그닥 흥미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한가지라 하겠다.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읽을거리를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앞으로도 나는 무난한, 평범하기 그지없는, 바르지만 고루한 이 행위를 취미 삼아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동일한 맥락에서 시편 23편의 첫 구절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한 꽤나 그럴싸한 모범 답안이다. 책 읽기가 취미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 나는 어린이 찬송가에서 이 말씀을 처음 만났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찬송이었는데 아마도 그 시절의 나는 말씀에 끌렸다가보다는 선율에 끌렸을 것이다. 딱히 성경을 가까이하지도, 말씀에 갈급하지도 않은 채 교회를 맴돌며 뜻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무탈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던 나에게 시편 23편의 말씀은 모태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세울 수 있는 최애 구절이 되어 주었고, 누군가 물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사모하노라 고백하다 보니 어느새 시편 23편은 나의 신앙 고백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간혹 낯설고 생경한 말씀으로부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쌓아 온 성경에 대한 지식과 굳건한 믿음에 감탄하며 나도 모르게 그를 다르게 보곤 한다. 나 또한 마음 한구석에 모태 신앙인으로서의 내공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신박한 구절 하나를 품고 싶을 때가 있지만, 결국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은 무난한, 신박함이라고는 하나도 없지만 타의 모범이 되는 시편 23편의 첫 구절이라는 사실을 거듭 인정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는 개역 한글판의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라는 말씀에 더 애착이 간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그대로 둔 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기다리는 느낌이라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겠다는 선언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나는 위로받고 싶을 때, 다시 나아가갈 용기를 얻고 싶을 때 지극히 의도적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펴고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다짐한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 백년을 채워 살지도 못하는 내가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판단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지만, 하나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림에도 그 분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인간적으로 너무하다 생각할 때가 있다.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 무응답이라는 사실은 고통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인생의 그 힘든 시간을 위로하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는 믿음이다. 깨어진 꿈과 채워지지 않은 소망에도 불구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여호와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다짐이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꾸밈없이 솔직한 나의 신앙 고백이며, 앞으로도 내가 가장 사랑할 말씀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 목자시기에 그 은혜가 제게 족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따르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n the waves

Phantom Author 1

3/7 (목)

“But immediately Jesus spoke to them, saying,
“Take heart; it is I. Do not be afraid.” (Matthew 14:27)

If You spoke but a word
The wind would surrender
Just as before.

So why not now, Lord?

Why from a distance?
Why make me doubt
If the presence I see
Is a thought or a ghost?

Why make me wait
As I fear for my fate
In the dark before dawn
On a toppling boat?

Why let me jump
Foolish and rash
Into the lake
When you know me, O Lord?

That I'd easily falter
Easily fall—
Prone to forget You
And more...

My faith is but little
That surely You know
So why not give up—
Why expect of me more?

But over and over
Sinking and rescued
Little by little
The noises recede.

The wind is still blowing,
The waves are still strong but
They fade into distance
As Your face I s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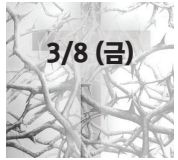
Clearer and clearer
And stronger and stronger
“Take heart, it is I,”
I hear it anew.

And maybe, just maybe,
I'll look back to find
I've been walking on water
With You.

Dear Heavenly Father, we pray for the faith to always keep our eyes on Jesus regardless of what may be happening around or within us. Amen.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김연희 집사



3/8 (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큰 아이가 새끼 손가락을 다치고 들어왔다. 학교에서 문에 끼었던다. 살짝 붓고 멍이 든 것 같은 손가락을 보여 주었다. 마음이 쓰였다. 어느덧 내가 저를 낳은 나이보다도 더 나이를 먹었고, 키는 나보다 한뼘 가까이 커버렸지만 내 손가락이 아픈 것 보다 신경이 더 쓰인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큰 고난에 내놓으셨다. 내 아들의 손가락 하나의 아픔에도 이리 신경이 쓰이는데, 고통스러운 박해를 받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셨다. 미운 자식도 그리 놔두지 못 할 텐데, 하물며 아버지 뜻대로 살며 아버지만을 따르던 그 귀한 아들을.....

여러번 고백했지만 난 못 할 것 같다. 아니 못 한다. 부활의 약속이 있지만 생때같은 자식의 목숨을 가지고 겜블링할 수 있는 엄마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이 되어 지난 한 해를, 짧게는 오늘 하루를 돌아 볼 때, 나는 올해도,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았음을 고백 할 수 밖에 없다. 나는 오늘도 숨을 쉬었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며, 때로는 내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었기에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앞에 내 놓으셨단다. 부끄럽다.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음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하고 오늘도 말씀을 들여다 본다. “하나님의 마음을 티끌 만큼이라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어느날 아이가 나에게 찬송가 가사 하나를 들고와 이야기 한다. “엄마, 이 찬송가 가사 좀 봐봐. 너무 맞지 않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 할 수 없겠네...”

알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른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당신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게을리 하지 않게 하여 당신의 사랑을 알아가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My Thankful Journey with God

Yooju Han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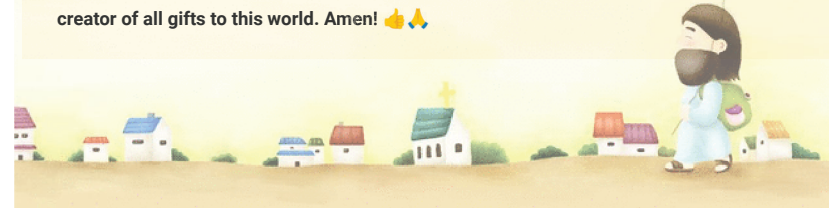
In the story of my life, I am grateful for God, who adds color to my happy moments and gives me strength during tough times. This is my personal journey of gratitude, where I find comfort and purpose in the presence of something greater, the king of all,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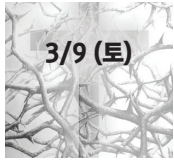
I'm thankful for all the good things in my life, like the time I went to Cancun, or the time I went Canoeing. These moments, big or small, are like gifts from God. It could be good friendships, the beauty of nature, or unexpected good things that happen to me. I feel blessed, and I know it's because of God's kindness.

When things get hard, I find strength in knowing that God has a plan. Even in tough times, I try to stay positive, and my gratitude helps me stay hopeful. I believe that God is with me, guiding me through challenges. It's like having a friend who never leaves your side. Going to Church and learning about God has taught me many things

One example comes from the Bible, and from James 1:17, Every good and perfect gift is from above, coming down from the Father of the heavenly lights, who does not change like shifting shadows. This means that everything, everyone, every life, every morsel of dust, every morning and night, is all from God. These words are a constant reminder that everything is not a coincidence, but a creation from God, who gifted us with such wonderful things.

In summary, my gratitude for God is like a thread woven through the ups and downs of life. Whether enjoying good times with friends or facing challenges, I find comfort in the fact that there's a caring force guiding me. Dear heavenly father, please let everyone know that they are loved and cared for by you, and you are the amazing creator of all gifts to this world. Amen! 🙌🙌





느헤미야 소고 (小考)

윤원길 은퇴 장로

“내가 이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4)

느헤미야서는 짝이 되는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벗어나 귀환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유대인들이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과 도시를 재건할 때 당한 반대와 장애를 이야기한다. 에스라는 학사겸 선지자이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다스 왕때, 왕께 술을 따르는 신하로 왕의 신임을 많이 받은 자이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영적 삶의 소유자이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다. 느헤미야서는 수사 (바벨론의 수도)에서 왕 앞에서 짧은 기도로 시작하고(1:4), 예루살렘에서 기도로 마친다(13:31). 느헤미야서 9:5-36 에 위대한 감사의 기도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기도의 결과인 것이다.

느헤미야는 1:8-9에서 레위기 26:33, 신명기 30:4말씀을 인용한다. 즉 범죄하면 출을 것이요, 여호와와 말씀 청종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명심시킨다.(9:7-8)

느헤미야는 활기찬 비전의 사람이다. 그는 완전하고 정직하며, 페르시아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 알지 못하는 수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도전한 사람이다. 파괴된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전히 개축한 사람이다. 반대파 세력이 있어 한손에 늘 병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한 사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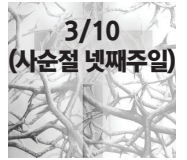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로 시작하여 마치 예레미야나 아모스 선지자가 선지서를 쓸 때 시작한 것과 같다. 또한 제사장은 아니었으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새롭게 한 사람이기도 하다.

우리는 느헤미야가 아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와같이 느헤미야가 겪은 힘든 사역을 우리도 할 수 있고 그가 낸 목소리를 우리도 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깨어 기도하면 당신께서 우리를 가장 필요한 곳에 쓰시게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이 쉬지말고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 주소서. 아멘.

사진으로 쓰는 자서전

김문소 은퇴 장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2021년 4월 코로나-19 덕분(?)에 Washington D.C. 에 있는 중앙 시니어센터 온라인 강의인 노세웅 선생의 ‘사진 자서전’ 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일 년 전인 2020년에 같은 강의를 수강했던 김내도 장로가 하는 말이 “배운대로 잘 따라 만들어놓으니 자녀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옛 사진들을 찾아가며 기억을 더듬어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한 글쓰기가 10월이 되어서야 한글로 대강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어세대인 자녀들을 위하여 ChatGPT 도움을 받아 영문으로 번역도 했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어떤 분의 글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글을 읽고 ‘사진 자서전’ 쓰기를 한 번 더 뒤돌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자서전이 본인이 이룬 스펙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스토리들로 이루어 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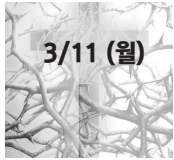
그리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앞에 정직하게 썼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내려고 쓰고 있나?
나의 80 평생 삶이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 왔나?

참으로 의문과 책임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과 “주의 여종이오니 밀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는 마리아의 고백에 힘입어 ‘사진 자서전’ 쓰기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머리숙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내 속에 밀린 죄의 때국물을 말끔히 씻어내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내가 깨끗히 씻음 받은 어린아이같이 변화된 인격체로 거듭나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나도 거듭난 생명으로 빛 안에서 뛰놀며 찬양하는 이번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땅에는 평화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구주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회복'

이석원 집사

3/11 (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1:3-4)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몇 달전, 9살짜리 꼬마소녀는 엄마 아빠의 옷깃을 부여잡고 38선을 넘었습니다. 공산당 등살만 잠시 피하면 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테니 곧 돌아오리라는 그 때의 다짐을 자신의 약속처럼 믿으며 살아온지 7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 꼬마소녀의 손을 잡고 밤 중을 틈타 수일을 걸어, 또 다시 차를 얻어 타고 부산 어느 마을에 거처를 마련한 나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 분들은 돌아가신지 벌써 수십 년이 흘렀고, 그 꼬마소녀였던 나의 어머니는 여든을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핑계로 5년만에 방문한 한국, 그리고 어머니... 몇 년만의 한국 방문을 의미있게 만든 것은 내가 자란 옛 동네의 천지개벽한 변화도, 유튜브 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어느 전통시장의 맛집 방문도 아니었습니다. 아들 내외 온다고 깔끔하게 치워 놓은 작은 방에 거거하면서, 매일 아침 아버지와 식사를 같이 하고 저녁 늦게까지 어머니와 수다떨었던 그 평범한 두 달이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우고, 나의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당신이 9살 때 떠난 함경도 마을의 기억들을 소환하였고, 옷다가 울다가 한숨 짓다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 그래요?”, “정말이요?”, “와! 대단하네요!” 의 장단 맞추기가 전부. “어머니가 사셨던 그 곳은 이제 다른 곳이 되었어요”라는 말은 삼키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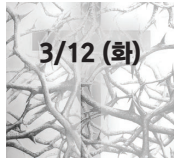
보스턴의 일상으로 돌아온 후, 구역 성경공부를 위해 느헤미야를 읽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이었던 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하고 금식기도까지 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보지도 않았던 그 곳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잠시 성경을 내려놓고 나의 모습을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팬데믹을 지나며 나는 주님과 얼마나 더 가까워 졌는지, 팬데믹이 끝난 시점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얼마나 더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회복'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 어머니도 세상 나라의 회복을 위해 탄식하고 기도하시는 걸 보고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새삼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고, 숫자의 회복이 아니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충만함으로 살아가는 2024년 한 해가 되길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회복을 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회복시켜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회복의 주체가 되어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세요. 아멘.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최학수 집사



3/12 (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마태복음 26:39)

2020년도를 섬길 집사회 회장선거가 있던 날, 다른 집사님 3명과 함께 회장 후보로 추천이 되어 투표 전 변을 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마지막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위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런 저의 꿈들을 이뤄가기 위해 한번만 더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회장으로서가 아닌 회장님을 열심히 보필하여 돕는 성실한 “청소부장”의 역할에 충성을 다해보겠습니다.”

집사회장 후보의 변을 할 때는 나름 자신이 있었다. 집사회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더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하니 회장 말고 청소부장으로 섬기겠다는 말을 생각해 낸 나 자신이 스스로 멋있어 보였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투표..

최정환, 황동준, 최학수, 채진병, 황동준, 최학수, 최정환, 황동준, 채진병, 최학수... 한번 한번 이름이 불릴 때마다 마음을 조렸다. 제발 내가 아니기를.. 이렇게 이름이 불리는게 싫었던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결국 그토록 원하지 않던 일이 나에게 일어났다. 16:17! 한 표차로 집사회 회장이 되어버린 것이다.

내 이름이 회장으로 불리었을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가 나를 어지럽게 만들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제발 집사회 회장만은 저에게서 물려주세요. 저는 정말 하고싶지 않습니다..” 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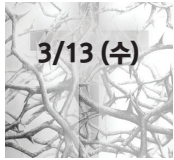
그리고 나서 일주일 내내 고민하며 기도했다. ‘주님, 제가 해야만 하나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돌아온 답은 간단하고 명료했다. ‘난 너를 위해 인간적으로 하고싶지 않았던 십자가의 수치와 치욕, 그리고 피를 쏟는 고난을 참아냈다. 난 너를 위해 무얼 할 수 있니?’

솔직히 부끄러웠다. 여전히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이기에 한다는 생각에 한 없이 부끄러웠다. 먼저 나를 위해 땀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 부끄러웠다. 나보다 먼저 섬기겠다고 약속한 집사님들에게 부끄러웠고, 나를 추천하고 집사의 본을 보여주시는 제직분들과 어른들께 부끄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사람들과 주님 앞에서 못하겠다고 뺨장을 놓은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그렇게 “하고싶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한 집사회 회장직은 얼마 지나지 않아 팬데믹이라는 큰 도전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집사회장의 역할은 결국 내가 그렇게 “하고싶어했던” 청소하고 방역하는 일로 일 년을 보내게 되었다. 내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올해도 집사회장 선거가 어렵게 끝났다. 개인적인 일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섬겨주신 배광현 현 회장님이 연임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또다시 부끄러움이란 단어가 생각났다. 그리고 생각해본다. “오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나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님,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습니다. 단지 주님의 흘린 보혈을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 우릴 위해 희생하신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물려 달라고 하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을 우릴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How to live

Phantom Author 2

3/13 (수)

“I perceived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them than to be joyful and to do good as long as they live; also that everyone should eat and drink and take pleasure in all his toil—this is God’s gift to man.” (Ecclesiastes 3: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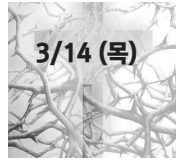
Recently, I was part of a discussion about Amish people, their way of self-sustained living and devotion to their church, and whether we should consider living a similar way of life, so that we could fully dedicate our lives to God. I will admit that similar thoughts come to my mind whenever I boot up a video game on my computer or sit down to watch football on Sunday. I think about how I’m spending my time on my own entertainment and how I could be doing work for God somewhere out there in the world. Then I say, “Ah well” and quickly discard those thoughts and go on about my business. But unfortunately, as I sit here writing this devotional, I am unable to move on from these thoughts, because these thoughts are the business at hand. And as I sit here, thinking I can’t help but think about the value of entertainment, or the value of football. What do these things add to the world? How do they make the world better? There are so many athletes that praise God, but are they doing God’s work out on the field, the pitch, the rink, or the diamond? Does God need us to do work for him? What does God want from such lowly beings as ourselves?

One of my favorite books in the Bible is Ecclesiastes, and a verse that comes to mind while thinking about these questions is Ecclesiastes 3:12-13. There it is written, “I perceived that there is nothing better for them than to be joyful and to do good as long as they live; also that everyone should eat and drink and take pleasure in all his toil—this is God’s gift to man.” Is entertainment and technology God’s gift for us to enjoy? And what is the toil that the passage refers to?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wonderful providence. I pray that we will not overly indulge ourselves, and that we will always be mindful of you day by day in both joy and sorrow. In Jesus’ name we pray. Amen.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정광근 장로



3/14 (목)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이사야 9:2)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어두운 골목길에서 등불을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같은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이 유심히 살펴보니 등불을 든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등불이 왜 필요할지 의아했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저기요, 앞을 못 보는데 왜 등불이 필요한가요?” 그러자 그는 등불을 자기 얼굴에 가까이 대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랑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 등불은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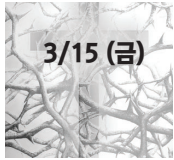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도 이 탈무드 속 이야기는 익숙할 것 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토록 반복적으로 구약 곳곳에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를 언급했지만, 끝내 그들의 교만은 구세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의 매일 읽고 가르친다는 탈무드에 우리 모두의 등불이 되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가 들어 있음은 얼마나 아이러니 한지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그 빛으로 비취줄 때 우리는 안전하고 궁극적으로 행복해집니다. 앞서 소개한 탈무드 이야기에 나오는 등불을 든 시각장애인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우리 삶의 귀한 등불을 선물하셨습니다. 그 등불로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삶이 내게도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일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빛을 다른 이들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또 그 누군가를 위해 받은 등불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면,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가는 것도 위험하고, 결국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누군가와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가 올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보지 못했던 죄인들에게 빛을 선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목상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등불을 통해 내 삶에 빛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어둠 속의 이웃들에게 말이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죄로 단절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완벽한 암흑 속에서 해매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을 회복 시키고 완전히 밝히실 빛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 아버지께 받은 그 빛되신 사명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을 태워 타오르는 등불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어두운 세상에 기꺼이 빛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그 등불을 받은 자답게 늘 감사하며 명예롭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너희들과 함께라면...

손효정 집사

3/15 (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그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저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15-16)

나의 사랑하는 킨더반 친구들에게,

5년 전 어느 날, 오드리 햄번을 닮은 한 언니가 내게 다가와 엄청난 제안을 했어. “효정아, 션플라워에서 섬겨보지 않을래?” 나도 모르겠어. 무슨 생각으로 “응, 해볼게!” 라고 대답했는지... 나의 인생은 그 날을 기점으로 180도 바뀌었어. 창피한 얘기지만... 나... 유주만 주일학교에 내려놓고 예배 시간에 근처 커피숍에서 수다를 떨었던 아웃사이드의 흑역사가 있어. 한 번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심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물론 성경책 한번을 통독해 보지도 않았지. 이런 나에게 이토록 중요한 일을 맡긴다고? 내가 할 수 있을까?

5년째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어. 처음 시작할 때 그 떨림과 부끄러움이 잊혀지지 않아.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마냥 너희들 앞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몹시도 어색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안했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시간이 지날수록 너희들에게서 사랑을 배우고 느껴. 또 너희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누고 예배드리는 이 옷이 이 세상 그 어떤 옷보다도 멋지고 아름답게 느껴져.

고마워, 나의 킨더 친구들...교회 근처에서 방황하던 나를 햄번 언니와 너희들이 교회 안으로 초대해 주었어.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고 확신해. 성경이야기에 호기심 가득찬 반짝이는 눈. 또박또박 너희 생각을 이야기하는 예쁜 목소리. 뒤로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뜬금없지만 한번씩 우와~하고 감탄하게 되는 기발한 아이디어, 멀리서도 자석이 끌어당기듯 서로를 향해 달려와 힘껏 나누는 따뜻한 허그... 나는 알아.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노력해서 갖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나와 너희들 곁에 늘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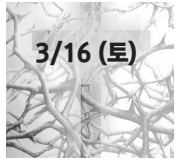
고마워 나의 킨더 친구들. 이번 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히 느끼게 해 주어서 말이야. 나도 너희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어.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너희들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심어 놓으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달란트가 킨더반에서 우리가 함께 하는 동안 무럭 무럭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앞으로 너희가 걸어갈 기나긴 신앙여정의 첫 걸음마를 함께함에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껴. 너희들과 함께 나도 걸음마를 떼며 처음에 품었던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결국 주님이 일하신다”라는 답도 찾았어. 그래서 더 고마워 나의 킨더 친구들. 그리고 무지무지 사랑해!

언젠가 너희들이 이 글을 우연히라도 읽게 되기를 바라며...

주님, 제 입술이 마주칠 때마다, 킨더 친구들 마음 속에 주님이 자리하여 주세요. 그들은 진정한 빛과 소금입니다. 귀하게 쓰여질 그날을 위해, 우리가 모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항상 함께 해 주세요. 무엇보다 많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서를 나누며 드리는 기도

권복태 은퇴 장로



3/16 (토)

“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우리의 당한 곤경은 너희의 목도하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받지말자 하고” (느헤미야 2:17)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어 지난해 새해 첫 날을 시작으로 12월31일 마지막 주까지 저희들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이 있어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우매한 우리 인생으로 말미암아, 세상 곳곳이 노아의 홍수처럼 폭우에 휩싸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벌에 녹아나며, 이 곳 저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으로 인해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여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세상의 남은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기간 여러 환난 중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어 어둔 세상에 빛이 되라 사명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있기에 갈한 목을 축일 수 있었고, 말씀을 따르므로 험한 인생의 갈림길에서도 바른 길로 걸어 갈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시어 복을 받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저희들 함께 읽으며 나누었던 느헤미야서를 통해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선민으로 회복시키려 성벽재건의 봉사과 희생, 수고와 헌신으로 살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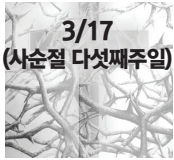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장대에 높이 달린 늦봄처럼 우리 죄를 대신지고 들리운 골고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 고백하므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옵시며, 남은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이 한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봉사과 희생을 본받게 하시고, 그로인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그 역사가, 순종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회복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름길 app(application)

김하나 장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사야 40:3-4)

주일이 아닌 평일에 교회를 가려야 하면 보스턴으로 향하는 교통 체증으로 원래 가던 큰 대로를 피해 좁고 구불거리는 local road 로 찾아다녀야 하는 모험적인 시간을 보내야 한다. 물론 지금 세상에 내가 직접 길을 찾아다니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빠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app이 있기 때문이다. 늘 다니던 highway로 가면 교통 체증으로 1시간 30분 남짓 걸리는 교회까지의 길을 적어도 20-30분을 줄여주는 다른 길을 알려주기에 모르는 길임에도 용감하게 나설 수 있다. 난 이 app을 절대 신뢰한다. 그리고 애용한다.

지난 수요일도 이러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app을 켜고 길을 나섰다. 물론 교통 체증을 감안하여 더 일찍 나서도 되지만 내 귀중한 시간을 길에서 낭비하기 싫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리라 믿지만, 게으름 피우고 싶은 나의 변명이랄까... 나의 운전 버디인 너튜브(YouTube) 속 CCM가사에 도취되어 흥얼거리며 나만의 QT 시간, 은혜의 시간을 가지다보니 역시나 낯설은 동네 10개 이상을 거쳐 가고 있었다. 찰라의 순간이었지만 갑자기 의심이 들었다. '이 길이 진짜 지름길일까? 내가 원래 다니던 길이 더 빠르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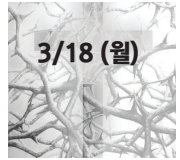
과연 지름길의 의미가 뭘까?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길? 아니면 거리상으로 가장 짧은 길? 내가 app을 사용하여 가는 이 길은 사실 시간상으로는 빠른 길이지만, 거리상으로는 더 긴 거리였다. 손가락 클릭 하나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길 위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특히 앞 길에 사고나 speed trap, detour등을 알려주는, 이 믿음직한 app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느 길로 가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 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내 철학적이면서도 신앙적인 심오한 생각으로 전환되어 나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었다. '내 인생 가는 길에 나는 어떤, 무슨 app을 사용하며 가고 있는가? 나의 인생길을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갈 수 있게 만드는 app은 무엇일까?'라고... 갑자기 온 몸에 뜨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app이 아니신가? 우리가 남의 도움없이 혼자 길을 찾으려 할때 겪는 많은 장애물들을 알려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직한 app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신가? 하나님이라는 소위 인생 지름길 길순이 app을 나이 60이 넘어서 이제야 깨닫다니...

성탄절이 지난지 얼마되지 않아 아직도 머리에 맴도는 메시아 곡의 가사 일부가 생각난다. "Every valley shall be filled in, every mountain and hill made low. The crooked roads shall become straight, the rough ways smooth. (눅 3: 5)"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평탄한, 순탄한 길을 운행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지름길 app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을까? 알고는 있어도 하루 하루의 길에 우리가 100%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을까? 회개한다.

나의 길이요, 산성이시요, 요새와 방패되시는 하나님을 또 다시 의지합니다. 나의 앞길을 평탄케하시고 길을 곧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엔트로피 법칙과 예수님

한국 교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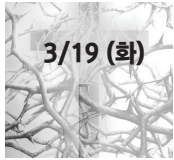
혹시 엔트로피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엔트로피는 쉽게 말해 무질서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지럽게 옷가지들과 책들이 널부러져 있는 방을 볼 때 엔트로피가 높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물건들이 잘 정리된 방을 볼 때 엔트로피가 낮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중에 열역학 제2법칙에 나오는 용어인데, 이 법칙은 “모든 계는 엔트로피가 항상 높아지려는 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에 잉크 한방울을 똑 떨어뜨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잉크가 점점 퍼지면 퍼졌지, 잉크가 다시 모이는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슬프게도 우리 지구는 점점 오염이 되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좋아지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고 석탄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노력은 어느 정도 오염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지구는 결국 오염되는 쪽으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가끔 우리의 마음도 이 열역학 제2법칙처럼 항상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가도록 설계된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결국 사탄의 고임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죄성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을 돌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마치 수조에 떨어뜨려진 잉크 방울처럼 가만히 두면 이 죄성으로 인해 점점 더 무질서해져가는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려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동시에 그동안 무질서해진 마음을 돌아보고,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음이 무겁거나 무질서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 걸으면서 듣는 CCM 가사를 소개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주 무질서해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크리스마스 저녁에

김영순 권사

3/19 (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0)

오늘은 2023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 이브 축하예배의 찬양대 칸타타 공연을 마치고 크리스마스 밤에 사순절 묵상집을 위해 펜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금은(!) 세속적인 선물 나눔과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며 나이 59세까지 설렘을 반복해 왔던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역사의 실제적 시간 속에서 마리아의 태에 예수님을 착상시키고 낳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처럼 설레셨을까?

하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는 버리셨습니다. 버린 척이 아니라 실제로 매정히 버리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은 고통 중에 확실히 죽으셨고, 3일간 죽음의 침묵과 절망을 맞보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첫 단추인 예수님의 탄생날에 과연 하나님은 나처럼 설레셨을까?

왜 그러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실제적 모습 중 의도적(!!)으로 반 쪽만을 보기 원하는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 공존이 안 되는, 서로 상충되는 사랑과 의. 이 이론적으로 공존이 불가능한 것을 함께 지니고, 아니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사랑의 모습만을 바라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계시기를 주야장천(晝夜長川) 주장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야 할까요? 기냥!!! 용서하시면 됐을 텐데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죽게 놔 두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악을 미워하셨고 본질상 악과 타협이 안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가능한 모든 고소에 한큐!!로 “입 닥쳐!”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그저 순종하신 건가요? 삼위의 한 위로서 본질상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바보라서 그 억울한 죽음의 고통을 감수하신 않으셨겠지요. 예수님도 악과 타협이 안 되는 분이시고 우리 모두 그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끔 이해 안 되는 비유나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으로만 밀어붙이려는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되어 그럴지도 모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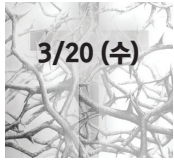
돈금 없지만 저는 범죄 동영상을 즐겨 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른바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 성격적인 경향(정상)을 넘어 지속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로 분류되는 많은 군상들을 보며 기막혀 하면서도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후 성격장애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현대뿐 아니라 홍수 이전의 인간들에게서도, 또 룯의 이웃들에게서도 익숙히 보셨을 모습임을 짐작해 봅니다. “거짓의 사람들(M. 스캇 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경건서적에 속하는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진짜 존재한다고?’라고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책의 저자는 이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셨을테고, 저는 이제야 오픈된 자료 등을 통해 그런 군상들을 만나게 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런 군상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꽤 존재합니다.

범죄동영상을 보면 범죄자의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감싸며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개중엔 스스로 자녀를 자수시키는 부모도 있습니다. 두 부류의 부모 모두 자녀를 사랑하겠지만 자수시키는 부모들은 그 자녀의 행동이 죄임을 인정하고 타협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악과 죄와 타협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의 내용 또한 그래서 타협이 아닌 선악간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나라의 정치 상황이든, 세계평화이든, 개인 삶에서의 억울함이든 말이지요. “아니 어떻게 그런 심한 기도를!”이라며 용서를 구하는 것만으로 점철된 기도는 “착한 척” 아니면 “무관심”한 것으로 연한 음식만을 먹는 것입니다. 질기고 굳은 음식도 잘 소화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훈련하는, 그런 엄혹한 기도를 올리면서도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걸바속속(겉은 바삭, 속은 촉촉)의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을 지나야만 천국이 우리에게 이상한 곳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훈련을 지나야만 다시 죽지도 못하는 천국에서 적응이 안 되어 도망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사랑과 동시에 의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이 사순절 또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생겨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敬畏: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하는 삶이란, 법체계와 함께 그런 의를 구하는 기도를 두려워하여 성격장애가 있든(유전적으로 생기든, 잘못된 교육으로 습득된 것이든 간에) 없든 믿게 된 사람들이(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엔 이런 기능이 법체계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방자함 중에 거함니다.) 하나님의 선악 판단의 대상으로 그 이름이 올려지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죄에 민감하여 지고 이를 악물고 그 죄를 피하며 항상 경계(alert)하며 살아가는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장성함이 있기를 구합니다. 십계명의 악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마음과 생각에서 짓는 나와 타인, 사회의 죄까지도 알아보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황망함, 억울함, 의분을 느껴보고 주께 고하여 극복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저희를 아브라함처럼 속을 나눌 수 있는 친구로 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어머니 교회

이주원 집사

3/20 (수)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베드로전서 2:2-3)

우리의 영적 여정의 중심에는 모든 이에게 어머니와 같은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우유를 갈망하듯 우리도 교회가 전해주는 순수하고 영적인 우유, 즉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작년에 안수집사 훈련 중, 담임목사님께서 어머니 교회에 대해 짧게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다운 비유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이 신성한 관계에서 어머니 교회는 교인들간의 관계를 형성시키고, 슬픔과 고민을 위로하며,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걷는 법, 친절과 자비의 언어를 말하는 법,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법을 배웁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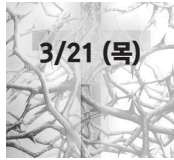
이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은 우리가 어머니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 교회의 양육 아래 하나의 가족으로서 서로에게 형제자매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교훈과 사랑을 나누며, 영적 가족의 성장에 서로 기여해야 합니다.

보스톤한인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자매로서 한 어머니를 섬기며, 어머니의 사랑 안에서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가족 사이에는 다툼과 어려운 시기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로인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듯이, 우리도 한 어머니 아래 서로 의지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보스톤한인교회가 우리에게 어머니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곳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치유합니다.

박영철 은퇴 장로



3/21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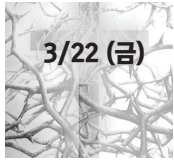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27)

우리몸에는 A,C,T,G, 4 codes로 기록된 하나님의 message 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행동력이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message 가 담긴 것을 life science 에서는 repair gene 이라고 부릅니다. 병의 치료를 위한 약은 치료를 돕는 것이고 치료하는 것은 repair gene 즉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이 치료하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제약 연구소에서 30 년 이상 일하면서 많은 새로운 약을 개발하였습니다. 몇 개의 약은 지금도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고, 그 중에는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약도 있습니다. 암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으므로 암의 치료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암은 세포들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커지면 repair gene 이 notice 하게 됩니다. Repair gene 은 repair enzyme을 만들어 암세포를 제거하고 정상세포로 돌려 놓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 Repair enzyme은 암세포를 제거하기 시작하는데, 암의 성장속도가 암세포 제거속도 보다 빠를 경우 암세포들이 더 커집니다. 암세포들을 수술/ chemo therapy/radiation therapy 로 제거합니다. 정상조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은 하나님의 message 가 담긴 repair gene 의 명령을 받은 repair enzyme이 합니다. 그러나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 계속 존재하면 암의 성장속도가 제거속도보다 빨라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병을 치유하는 몇 가지 방법을 2023년 보스톤한인교회 사순절 묵상집에 “우리 몸의 병을 자가 치유하는 방법” 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하였습니다. Computer search로 Korean Church of Boston/Resources/사순절 묵상집/2023 년도 사순절 묵상집/page 50 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약 섭씨 40 도 까지 올라갈 때 주위의 물질과 접촉이 증가되어 repair enzyme activity도 올라간다는 것이 여러 과학 journal 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hot tub 에서 몸을 담구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모든 질병을 고칠수 있도록 우리 몸 안에 행동력이 있는 치유의 message 를 넣어 두었다는 것을 알게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My Blessed life by Jesus. Mina Chung (10th grade)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Isaiah 43:21)

My life has been a blessing since the moment I was born. I am grateful that I was born into a sincere Christian family. My family goes to church to worship every Sunday and works in various church events. We are somehow involved in many aspects of our church, 24/7/365. It seems that we constantly work for God in some ways and I feel blessed to be a part of those. It is such a privilege that not everyone could get. I hope God's blessings would continue for the rest of my life.

I've learned that we are all sinners, but God is there to forgive all of our sins. He never ever fails us in any circumstances. God sent his only son, Jesus Christ, to die on the cross for us, which will allow our sins to be forgiven. Having a family, shelter, food, water, and all of the necessities to live my life are all a blessing in itself. I can live my life safely and happily because of God's protection and guidance. I try not to worry or be anxious too much whenever I face to some obstacles in my life because I know that it is a part of God's big plans and my life is absolutely in His hands. I can turn to God when life gets hard. God is the reason for all of the good in my life.

There is so much hatred and negativity in this sinful world but all Christians should believe that God will allow there to be good. He will bless us with amazing lives, comfort, and happiness. He will listen to all of our prayers, day and night. We can share the word of God through scriptures, music, prayers, worship, and so many different figures. We can spread good news to non-Christian family in order for them to have eternal lives just like us. Anyone has the capability to bring God into their lives no matter what part of their lives they are on. Your current spiritual journey will only continue to strengthen and your relationship to Jesus Christ will constantly grow. I would forever praise and worship our God and give thanks to him for the life he has granted me!

Thank you, God, for making me believe that I am one of Your people. I will live as your daughter who would make you happy all the time. I prayed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My Savior Jesus Christ!

Minu Chung (6th grade)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Matthew 16:16)

Dear G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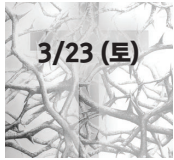
I am grateful for the shelter you have blessed to my family with, and for the food and water you provide us. I am also grateful for you keeping us safe, even though I am a sinner, and so is my whole family. Lord, you had your son, Jesus Christ, die on the cross to save us from our sins and rescue us from Satan. You will always be my Savior, and if there's anything I can do to please you for what you did, I am willing to do it. I love you, God.

When I went to Saint Paul Cathedral in London, I saw what hell looked like, and I got scared. However, my father reassured me that I do not need to worry because, as long as I am a Christian, act like one, and always love and worship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I will always go to heaven. Thanks to Dad's words, I was able to have a peaceful sleep that night!

I appreciate how blessed I am because I don't have to fear war like in Palestine or Ukraine, and I am blessed to have loving and caring parents whom I couldn't live without.

I spoke to my pastor about if good people who are not Christian can get into heaven, and he said no... And He added because we are not able to be completely good so God provided only one way for everybody to go to heaven through the love of Jesus Christ with faith! So, I always try to tell my friends that they should consider becoming Christian one day because I would never want any of my friends to end up going to hell. Life is unpredictable, and nobody is guaranteed to live or die. If I were Jewish or Muslim, I would switch to be a Christian as soon as possible. I will always be a Christian, and I will thank you for everything until my last breath on my deathbed.

Jesus, who saved me... I may not fully understand the exact meaning yet, but I can feel it through my life and our family's life. Thank you, Lord. I will live well. I prayed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Amen.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지금 산다는 것

이지용 집사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11)

나는 지금 2024년 새로운 여정 앞에 서있다.

사람들과 주고 받는 “Happy New Year~”도 서서히 잦아든 요즘, 2024년 이라는 여행의 페이지를 채워나가기 앞서, 올해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과 현실을 살아야 하는 부담과 마주하고 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낯선 타국땅에서 기죽지 않고 떳떳하고 바른 생각과 태도로 살기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도 고민한다. 또 나의 경솔함과 허영으로부터 나온 실수들을 반성한다.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순간들, 말로 가까운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 마음속으로 타인에 대해 우월한 마음을 가졌던 순간들. 모래알같은 미미한 존재인 내가 이루면 무엇을 이루었고, 앞으로 무엇을 이룬다해도 주님의 위대하심과 비교할 수 있을까? 심지어 내 자신의 몸과 마음도 다스리지 못하는 나약하기만한 나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혹하고 없어질 존재인데, 내 안에 나는 왜 이렇게 자만과 허영이 많을까 또 무엇보다 신앙은 왜 내 삶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마음이 힘들다.

그렇다. 연초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올해는 뭔가 머리가 좀 복잡하다. 좀 더 특별한 한해로 만들고 싶은 욕심일까, 아니면 작년에 못 이룬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일까. 왠지 보스턴의 스산한 겨울은 몸도 마음도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더욱 필요로 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다. 눈을 감고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동안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당연한게 하나도 없고, 그냥 일어난 일들 하나 없는 완벽한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분에 넘치는 은혜...어쩌면 내 복잡한 생각들은 더욱 더 깊은 성장을 바라는 나와 그것을 빠르게 이루려고 하는 급한 내면의 욕심이 충돌해서 나오는 갈등과 불편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 문득 의연하고 서두르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목상되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실 때도, 사단의 시험을 받으실 때도,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을 볼 때에도, 심지어 제자의 배신으로 팔려가실 때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예수님은 육적인 고통은 있으셨겠으나 부활의 확신이 있으셨기에 복잡하지 않으셨고 서두르지 않으셨고, 불쌍하고 무지한 인간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아파하셨고, 끝까지 인내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준비하는 기간인 사순절, 서두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목상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짐을 느낀다. ‘그렇지,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단단히 쌓아가는 것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지. 아, 내가 잠시 이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구나’

눈이 와서 쌓이고, 햇살에 녹고, 찬바람이 불고 다시 잔잔해지고가 반복되면서 반드시 봄이 다시 오듯, 나도 스스로 묻고, 끄끙대며 내 수준에 맞는 그럴듯한 대답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다 보면, 언젠가 더욱 견고하고 단단해진 내 모습을 볼 날들이 오겠지...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시간과 허락하신 모든 환경에서 자유를 누리며, 덜 심각하게, 덜 복잡하게 더 많이 웃으며 살 날이 오리라 생각한다. 중간중간 보석처럼 계속해서 주실 고민과 아픔과 시련, 난관이 있겠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하나 잘 해석하며 지혜롭게 넘어가고, 이겨내고, 배워가다 보면 바람이 나무를 훑- 한 번 쓰다듬으며 흔들고 가듯, 주님 나에게 “지금 잘 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며, 문득문득 알 수 없는 벅찬 기쁨의 마음을 주시리라 믿는다.

그래, 지금을 살자.

넘어질 자연정 다시 일어나 지금을 살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써나가다 보면, 어느새 2024년도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르겠지...

갑자기 랩 운율에 딱 맞아 떨어질 법한 가사가 떠오른다.

Yo, Listen,

결론부터 이야기할게, 너에게 중요한건? 지금!

과거의 후회와 미련, 미래의 복잡한 계산과 걱정 아닌 지금!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 “지금”이 아닌 현금 혹은 입금이 중요하다고

값 없이 주어지는 “지금”,

값을 매길수 없는 “지금”,

그 분의 허락없인 누릴수 없는 “지금”

Remember that's the Gold (금)이야

헤이, 베이비

현금이 생기면 예금이나 적금을 생각해?

Say no to the temptation

현금이 생기면 현금을 생각해

그리고 지금을 살어 보금 (복음)과 함께,

네 마음에 보금으로 잠금을 걸어,

Say yes to Jesus, the supplier of 지금 and 복음,

그러면 넌 될 수 있어, 세상의 소금, Yeah~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의 여정을 목상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Leave Her Alone

Rev. David Cho (조은일 목사)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the home of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There they gave a dinner for him. Martha served, and Lazarus was one of those reclining with him. Mary took a pound of costly perfume made of pure nard, anointed Jesus' s feet, and wiped them with her hair.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of the perfume. But Judas Iscariot, one of his disciples (the one who was about to betray him), said, "Why was this perfume not sold for three hundred denarii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He said this not because he cared about the poor but because he was a thief; he kept the common purse and used to steal what was put into it.) Jesus said, "Leave her alone. She bought it so that she might keep it for the day of my burial. You always have the poor with you, but you do not always have me." When the great crowd of the Jews learned that he was there, they came not only because of Jesus but also to see Lazarus, whom he had raised from the dead. So the chief priests planned to put Lazarus to death as well, since it was on account of him that many of the Jews were deserting and were believing in Jesus. (John 12 1-11)

Today's story comes from John 12, which took place right before Jesus entered Jerusalem.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v.1). As we know, Jesus was arrested and crucified on the day of Passover, which means the death of Jesus was coming very close. That's why this event at Bethany is crucial for us in this Lenten season as we are anticipating and approaching the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Six days before the Passover, Jesus came to Bethany where Lazarus and his two sisters: Martha and Mary lived. Jesus loved the siblings and came to their house to eat dinner with them. There were also other people including Jesus' disciples. In the middle of the feast, "Mary took about a pint of pure nard, an expensive perfume; she poured it on Jesus' feet and wiped his feet with her hair."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the fragrance. Everyone was stunned and surprised. While some thought it was beautiful and moving, many were quick to think "That's too mu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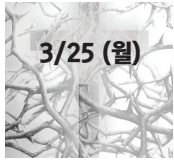
One of the disciples, Judas broke the silence and spoke up with unbelievable disregard by saying, "Why wasn't this perfume sold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It was worth a year's wages." Judas was furious to see what Mary just did. Yes, Judas was being obnoxious. But Judas had a point. Mary took a pint of pure nard, which was a very highly valued fragrance and anointed the feet of Jesus, Yes, this oil was worth one year's wages! Think about it, this is pretty crazy. You do your own calculation. That's lavish given that Mary's family was not rich at all.

Now Jesus responded to Judas saying, "Leave her alone." Jesus says, "Leave her alone, Judas so that she may keep it for the day of my burial. For the poor you always have with you, but you do not always have me." Here's what I believe Jesus said, "*Judas, stop what you are saying and leave her alone. You have no idea what this means for her and me. You are missing something very important out here.*"

Jesus knew and understood that Mary did this out of her deep love. Mary was so in love with Jesus, and she knew the worth of Jesus. Her heart was full of wonder, joy, and thankfulness for all that Jesus had done for her. For Mary, there was no way to calculate the cost of the amazing love and grace of Jesus. Money didn't matter. However, Judas didn't see the true value of Jesus. He was clearly not interested in caring for the poor. He was really upset and annoyed to see that Mary did something lavish for Jesus because for Judas, clearly, Jesus was not worth a lot.

How much is Jesus worth to you? That's a tough question. But what's clear is that oftentimes, we are just like Judas. We say we love Jesus, but our actions don't reflect that. We take him and his grace and love for granted. That's very sad and tragic.

But, brothers and sisters, listen to the Good News! Don't be discouraged. While we were so sinful, Jesus Christ still showed his unconditional love on the cross for you and me. That's why. That is why we can confidently and willingly follow Christ in demonstration of our love and devotion as Mary has done. Jesus is waiting for you to open the door and let him enter your heart. And I pray you can experience that today!



하나님과 씨름을

박신영 장로

3/25 (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하박국 1:2)

고등학교에 입학해 보니, 눈에 가장 띄는 운동선수들이 덩치가 산만한 씨름선수들과 유도선수들이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씨름부 선수들은 체육시간에 기술시범을 보여 주기도 하고, 직접 가르쳐 주기도 했다. 서로 살바를 잡고, 온 힘을 쏟아 팽팽한 긴장을 유지하다가, 순식간에 상대를 넘어 뜨리거나, 때로는 자신보다 훨씬 큰 선수를 상대의 힘을 이용해 넘어뜨리는 씨름 기술은 무척 화려했고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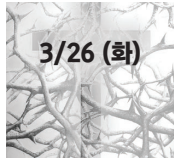
하박국은 '씨름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공의가 굽게 되었는데, 잠잠하신 하나님에 대해, 사납고 무서운 불의한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부당함에 대해 부르짖으며 하나님과 씨름했던 선지자 하박국. 그는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끌어 안고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며 씨름을 했고, 마침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함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

새해를 맞아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원하지만, 수많은 난제들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요즘, 세상을 보니 답답한 마음이 앞선다. 도무지 의와 진리가 힘을 얻고 점점 좋아지는 기미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은 더 어두워만 가는 듯하다. 한편에서는 전쟁, 각종 재난에 더해 질병과 결핍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사치와 향락으로 물질의 풍요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는 듯하다. 단지 풍요와 빈곤 사이의 갈등문제가 아니라, 물질과 기술혁신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은 크게 보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은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 같다. 덩달아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줄어들어 가는 듯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힘을 얻어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으련만... 이와같은 때에 우리가 기댈 곳은 주님 밖에 없는 듯 하다, 하박국 선지자 때처럼. 풀기 어려운, 아니 풀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려 버티는 씨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주님, 오직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적당(適當)히 하면...

최현구 장로



3/26 (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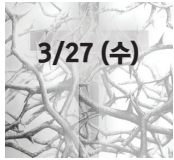
나는 '적당(適當)'이라는 말을 좋아한다. 알맞을 '적(適)'에 마땅할 '당(當)'이 더해진 한자의 원래 뜻에 따른 사전적 의미는 '적절하여 마땅하다', 또는 '정도나 이치에 꼭 알맞고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엇비슷하게 요령이 있다'라는 의미로의 쓰임이다. 요즘에는 '대충대충' 또는 '얼추 맞춰서'라는 바로 이 두 번째 용례로의 '적당~히'가 사람들에게 더 익숙하게 많이 쓰여지는 것 같다. '적당(適當)'을 잘 보여주는 성경 속 이야기들 찾으려면 출애굽기의 만나사건을 떠올리게 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둔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둔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분측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출16:16-18)
어떻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을까? 그것은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사람의 수효대로' 거두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많이 거두었다'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자기의 분량보다 많이 거두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장막의 사람들이 많아서 그 숫자에 맞춰 많이 거두었다는 뜻이 분명하다. 물질만능주의시대, 맘몬(Mammon)이 판치는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적당(適當)'한 게 어떤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를 위해' 더 많이 가지려,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더 강한 세력을 모으려 모든 것에 '더, 더, 더...'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우리들은 '크리스천(Christian)'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여정에 발을 내디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꿈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한 실력과 수준에 있어서는 턱없이 함량(含量) 미달인 존재들이다. 그렇다고 '적당~히' 구색만 맞춰 '무늬만 신자(Nominal Christian)'로 살아가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 '적당(適當)'한 우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구해야 할까?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 중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풀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것을 실행하여 내 삶에 실재(實在)하도록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고 실력이다...ㅏㅏ)

그럼에도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견인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들'이 되도록 우리의 수준과 실력을 성장시키기 원하신다. 예수님을 따르고 (마4:18, 9:9; 막8:34; 요 21:22), 예수님께 배우면 (마 11:29),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재(內在)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온전히 회복된 삶의 예배'가 곳곳에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 장자(長子)이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함량미달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 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적당(適當)'한 수준과 실력을 갖추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 날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소망한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정은아 집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디모데전서 4:4)

보스톤한인교회 교우님들 안녕하세요^^

보스톤을 떠나오기 전 꽃소리(음성편지함이었죠 아아~)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13년 보스톤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곳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두 다시 만나는 날까지 행복하세요” 라고 남겼던 기억이 나네요. 떠나오던 날처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던” 경험을 교우님들과 나뉘보려고해요.

달라스로 이사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던 무더운 8월의 어느 금요일, 아들이 3 시간동안 사라졌다. 그 날 아침부터 남편도 나도 딸들만큼 재깍재깍 행동 못하는 아들을 닥달하고 욱박지르고 차에서 마지막 인사를 다정하게 나누고 싶어하는 아들을 향해 “됐고! 좀 빨리 내려!” 소리치며 밀어냈다. 차를 돌리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아들 뒷모습을 어렴풋이 본 것이 어쩌면 마지막 모습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꿈에도 안해봤는데...

아들의 축구 클럽으로 픽업을 간 남편이 픽업 시간 30분이 지나고 아들에게 연락 온 거 없냐고 전화가 왔다. 전날 아들은 핸드폰을 아빠에게 압수당한 상황이고, 그 아이는 변죽이 좋아서 아빠를 못만나면 친구폰을 빌려서라도 전화할 아이인데 따로 전화가 없었다.

한 시간이 흐르고 빨리 주말 맞이하려고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한산해진 축구장에서 남편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남편은 전화로 “아들폰을 꺼내서 축구클럽 메시지창을 열고 혹시 아들을 본 친구 있는지 메시지를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메시지를 남기고 40분 가량 여기저기서 아들을 봤다는 메시지가 올라올 때마다 남편은 부지런히 찾으러 다녔지만 아들은 그 곳에 없었다. 2시간이 조금 지나고 해도 무섭게 저가는데 메시지를 주던 아이들이 하나씩씩 저녁식사하러, 자러 가야한다며 good luck, pray for Eunho를 남기고 떠났다. 나는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고 딸들이 엄마 보는게 더 불안하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나도 그게 낫겠다 싶어 방에 들어와 침대 모퉁이에 걸터앉았는데... 이 적막함이 너무 무서웠다.

좀 전 까지 아기새 잃은 어미새처럼 동동거리던 나는 고요한 방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다. 하나님,, 그리고 입이 안떨어지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떠올랐다. 꼭 다물고 있던 입술을 열고 눈물 콧물을 다 먹어가며 습관처럼 시작하는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그리고는 기도를 더 이을 수는 없었다.

해가 다 졌다. 남편에게 마지막 걸려온 전화는 축구클럽 관계자들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영화에서만 보던 장면이니까 결론은 내맘대로 비극이었다. 아이는 결국 죽어서 찾아지는 영화들만 봤으니.. 절망적이었고 하나님께 욱심내지 않겠다고 아들을 내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며 기도는 끝났다. 남편은 경찰에 신고하러 가던 길에 숨이 안쉬어지고 어지러워 주저앉았다고한다.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무너지는건 처음 보았기 때문에 나는 내일부터 우리가 일상을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막막함이 주는 절망은 태어나서 처음 겪은 것 같다. 이런 숨막히는 마지막 순간이 1-2분 정도였을텐데 지금도 생각하면 가장 지옥같은 긴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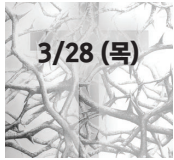
갑자기 큰딸이 “엄마! 잠깐만요. 은호 찾았대요” 라고 소리쳤다. 40분 넘게 메시지만 의지했지만 다 헛수고였던터라 나는 누군가 메시지 창에 또 장난을 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장난치면 안되지” 라고 말했는데, 딸이 들고 있던 아들폰 너머로 “엄마”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참고 있던 울음이 터지면서 소리내어 영영 울었다. 그렇게 울면 정말 큰 일 일까봐 아무도 소리내서 울지 못했던 울음... 아들은 그 길로 아빠와 통화가 되고 3시간 짝 채우게 사라졌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 날 저녁은 우리가족이 매 주 즐겨보던 드라마 마지막회를 보기로 한 날이었는데.. 못보게 될 줄 알았던 드라마를 켜놓고 차갑게 식어빠진 후라이드 치킨을 정성스럽게 다시 데웠다. 차소리가 나기도 전에 주차장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차에서 내렸을 때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다.

‘널 다시 만지고 안아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서 엄마는 고맙다. ’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이상 이어갈 나의 기도는 없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완전 헤프닝이었는데 다 쓰면 원고 분량에서 탈락이라..자체 생략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삶의 깊이를 원치않게 파보았던 이 날의 기억은 얼마인 제겐 아직도 생생해서 저는 혼자 달력에 ‘8월 0 일 아들 3시간 사라진 날’ 이라고 써놓는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돌아온 탕자 이야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예수님의 마음” 이 한꺼번에 깨달아지고 느껴졌던 경험, 그 순간 감사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번 사순절 묵상집 글의 마무리가 될 거 같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같은 우리를 끝까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탕자같은 우리가 돌아올 때 맨 발로 뛰어나와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장현 집사

3/28 (목)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고린도전서 2:3)

요즘을 많은 크리스천들과 사역자들이 소위 이성과 논리적, 합리적 그리고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그럼 과연 성경이 이성과 논리, 철학적인 사고와 지혜로 쓰여지고 기록된 책인가요? 아마도 그렇다면 우리는 요즘같은 첨단 과학 인터넷 시대에 살면서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수 많은 철학 서적과 지혜를 구하는 사상과 경전들을 얼마나 공부하고 접하며 자신을 만족시키는 지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로서는 사도바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도바울은 그 시대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에 통달한 자요, 율법상 전혀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최고의 히브리인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으로서 갖출 것은 다 갖춘 당대 최고의 금수저 엘리트였던 그가 고린도전서 2:3-5에서 무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무엇도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천하의 사도바울이 그가 사역하는 가운데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 없을까봐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식을 갖춘 바울이 이렇게 대 사도로서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과정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주님을 만나 회개하고 변화된 과정을 정리해 보면 “다소-다메섹-직가-아라비아-안디옥” 이런 과정으로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로 살 때에 주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에 강력한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가에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 그 다음 아라비아로 가는데 바로 이 “바울의 아라비아”에 (갈 1:17)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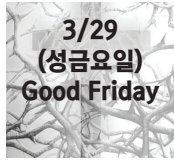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성령이 몰아내셔서 40일간 광야에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막 1:12-13) 고난의 광야를 건너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모세도 애굽의 왕궁을 버리고 광야 4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였기에 고난끝에 이스라엘이 탄생하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인물들은 시대적인 무대와 배경만 다를뿐. 이들은 바울과 같이 고난의 광야를 반드시 건너고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러하였고, 요셉,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말씀과 담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두려움없이 바울이 건넌던 이 고난의 아라비아를 통과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도 바로 이 “아라비아” 라는 광야의 고난을 거치면서 위대한 바울서신 13권이 나오게 되며, 이 서신들은 이후, 로마를 무너뜨리며 유럽을 복음화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교회 창립 70 주년 기념 사진전에서도 보듯이 많은 선교사들이 암흑과도 같은 조선 땅에 오로지 성경 한 권 들고 들어와 순교하기까지 말씀을 전하였고, 그 믿음의 피가 밀알이 되어 주기철, 손양원같은 훌륭한 초기 목사님과 여러 초대교회 목사님, 장로님들로 이어져 지금의 대한민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온갖 멸시와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님 저희들은 지금 인생의 거칠고 힘든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지나고 있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죽음의 문턱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기적

윤현자 집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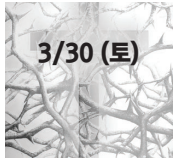
내가 9살 때 엄마가 유방암에 걸렸다. 그때 이웃집 16살된 처녀가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6남매 고아 안 만들고 아주머니께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어서 뉘새가 나는 자도 살리신 분이예요.” 집안 대대로 신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엄마였지만 예수님 믿으면 살 수 있다고 하니 그 자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셨다. 아픈 몸으로 새벽기도를 나가 ‘나를 살려주신다면 나는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3주만에 기적이 일어났다. 암이 완치되었다. 나는 그때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고 성경 말씀이 거짓이 없음이 믿어졌다. 그 때 이후로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 우리 엄마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 75세가 넘어서도 Lexington 사거리에서 “Jesus loves you! Jesus saves you!” 피켓을 들고 노방 전도를 하셨다. 엄마는 54년 생명영장을 받아 87세에 소천하셨다.

서른 중반 무렵, 나는 부분적 장폐쇄증 진단을 받았다. 2번의 큰 수술을 받았고, 5-6번 응급실을 들락거렸다. 장이 서로 붙어 썩은 곳을 도려내고 붙여놓으면 다른 곳이 또 붙어서 썩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물 한방울 넘길 수 없고 겨우 넘긴다해도 곧 게워져 나왔다. 2달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혈관도 다 숨어버려 나의 생명 연장선인 링겔, 영양제, 피주사 등을 공급할 주사바늘조차 꽂을 수 없는 지경까지 향하고 있었다. 피골이 상접하고 온몸이 발끝부터 굳어올라와 마치 나무토막같은 산 송장의 모습으로 숨이 안 끊어져 연명하고 있던 상태였다. 병원에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가족과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했다. 큰 애가 12살, 작은 애가 겨우 5살이었다. 길면 2달, 짧으면 1달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열흘처럼 힘들어요, 살려주실려면 속히 살려주시고 아니면 빨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넌 어차피 못 먹으니 금식기도라도 하고나서 죽더라도 죽어라.’

퇴원하면서 나는 홀이불에 둘둘 말려 경기도 파주의 오산리 기도원으로 이송되었다. 3층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고, 1층에서는 신유 전도 집회가 한창이었는데 나에게는 그 모습이 천국처럼 보였다. 조용기 목사님이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입소한지 3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몸에서 무엇인가가 한꺼풀씩 벗겨져 나가는 것처럼 스르륵 스르륵 소리가 들렸다. 그리곤 이내 몸이 느슨해 지면서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꽉 조여있다가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물이 마시고 싶어 한모금 마셨는데 몇 분이 지나도 게워내지 않았다. 그렇게 2달 만에 처음으로 물 반컵을 마시게 되었다. ‘아, 하나님, 저를 살리셨군요. 막힌 장을 뚫어주셨군요. 이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연장해주신 삶을 올해 37년째 살아내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려 주시지 않았다면 이쁜 머느리도, 귀여운 손주들도 내 생애는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소서!

Thank God! Glorify our God! I will only follow God's will no matter what it is. Hallelujah! Amen!

주님의 뜻만 원합니다. 당신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게하시고, 수호천사처럼 나의 곁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김희진 사모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3-24)

잠에서 깬다. 눈에 빛이 들어온다. 아직 살아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된 게 신기함 그 자체이다. 지구에서 살아가며 자연의 질서 안에서 붙잡을 수 없는 걸모습은 변하지만 내 생명은 그렇게 야기처럼 매일 다시 태어난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한다. 나의 어제와 오늘, 내일은 하나님 시간표 안에 있다. 하나님의 시간은 나의 시간과는 다르다. 광대한 우주의 시간을 운행하며 만물을 다스리신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나의 대답을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한 시간과 장소로 광활하게 확장되는 동시에 가장 밀착되어 정신이 번쩍 나게 하고 평안하게 한다. 신비롭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사랑을 사랑하는 힘이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악에 빠지기 쉬운 나를 가르치신다. 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일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곤 물으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익숙한 공간도 갑자기 어두워지면 당황하게 된다. 시야가 차단되면 불안과 답답함에 허둥지둥 실수를 한다. 마음과 생각의 눈까지 어두워지는 순간, 내 힘으로 평안한 상태가 되긴 어렵다.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성령님은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부셔뜨린다. 지도와 목적지를 보여준다. 내가 주저앉은 곳이 당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건져주신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하신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조용히 읊조린다. 회개하고 뒤돌면 바로 다시 죄의 길에 서 있는 나를 빛과 진리 안으로 온전히 이끄시는 성령님을 통해 당신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끝날까지 동행하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곤 또 물으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를 시작하고 연결하고 지탱하고 휴식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혼자 힘으로 견뎌내려 했던 불안하고 두려운 내 모습을 아신다. 매 순간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숨쉬는 것부터 예수님을 따라 진리와 자유를 누리고 싶음도 아신다. 기쁨과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시고, 나보다 나를 더 기다리시며 줄 곧 격려하신다. 일상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과 동료들을 만날 때, 이 기쁨과 평안을 나누라고 하신다. 교회에서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청년들과 또 부부청년부와 신앙교제를 하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과 함께 성경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신다. 모든 공간에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러곤 또 다시 같은 질문을 반복하신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약속은 연약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편지이기도 하다. 연약한 자를 먼저 말씀으로 먹이시고 예수님을 따라 방향하지 않고 빛을 따라 걸을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더 기쁘고 솔직하고 온전해지기 원한다. 다양한 민족, 세대와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생각과 말을 분별하여 사용하는 지혜와 우상이 되기 쉬운 문화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 베드로처럼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내가 원하는모습의 메시아를 좇는 나를 보실때면 제발 정신차리라고 혼을 내신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친구가 되어 생명까지 주신 분. 길을 잃고 죽어가는 영혼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음으로 그 위대한 사랑을 표현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다.

세상을 사는 동안, 흔들리고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시는 주님, 예수님의 기쁨과 사랑을 간절히 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빛 가운데 다시 일어서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진주 장사와 부활

이영길 목사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42-44; 마태복음 13:45)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부활한 후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를 감사하기 위하여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예배로 인해 아직도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도 천국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부활의 축복은 우리들의 전 재산을 팔 때 온전히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 조금 표현을 달리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드러만큼 부활의 축복을 누리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을 드러지 않고 부활의 축복,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려고 할 때 존 스타인벡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를 삶에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입니다. 그의 고백에서 전 재산을 팔아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중략) 파커 파머는 당신의 책에서 모린이라는 여인을 자신의 돌도 없는 영성 멘토로 소개합니다. 모린은 싱글맘이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심한 발달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린은 두 가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딸을 남겨두고 피정에 가거나 형식화된 영적 수행을 할 시간과 에너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모린은 딸의 삶이 심오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그 아이도 지구의 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실재에 닿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모린은 딸의 삶이 심오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깨달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린은 딸과 함께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모린은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딸이 발달 장애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부활의 주님의 임재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덧 그의 매일 매일의 삶은 황금 먼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힘든 일들은 빛나는 황금 먼지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모린의 황금 먼지의 삶을 옆에서 보았던 분이 바로 파커 파머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린과 함께 있으면 은총의 명상이라는 원 안에 있는 듯했다고 고백합니다. 모린으로 인해 파머씨는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파머씨는 자신의 가치를 알아 보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모린이 이런 진주와 같은 삶을 살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모린은 썩어질 것 안에 보화를 발견한 것입니다. 욕된 것 안에 진주를 찾아 낸 것입니다. 약한 것 안에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는 강함을 보곤 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발달장애가 있는 딸과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은 황금 먼지가 되어 간 것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진주 장사가 되어 간 것입니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모린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성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파머씨가 누린 축복을 누리까?’ (중략) 교수 여러분, 값없이 진주를 사지 마십시오.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사십시오. 전 재산을 파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욕된 것과 약한 것으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부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진주 가루로 감싸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4/9/2023 부활주일 설교문에서 발췌)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25-28)

지난 주부터 발 뒤꿈치 통증이 시작되었어요. 늘 바쁘게 살며 많이 걷고 뛰며 나를 보채고 주변 사람들을 재촉하던 내가 갑자기 다리를 접니다. 의사 말로는 심한 스포츠 활동(스포츠는 하는게 없으니 노동인 거 같습니다) 등으로 인한 아킬레스건의 염증같다고 하네요. 밤에 잘 때도 통증이 심해 발을 똑바로 침대 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꼬빵 (Kopain, 비지니스 선교로 시작한 레스토랑 카페)의 요리사가 나와 셰프 두 사람 뿐이니 갑자기 일어난 나의 질병으로 이번 주는 카페 문을 닫아야하고 저녁에도 하루 문을 닫아야 합니다. 어제 초대한 프랑스 친구 새가족들 모임도 내가 걷지를 못한다고 취소하고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남편 안지일 목사는 지극 정성으로 약을 갖다주고 연고를 발라주고 밥도 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심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몇 년 전에 허리가 아파 누워있던 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었는지가 기억납니다.

교회 사역도, 비지니스도, 가정 일도 모두 멈춰버린 오늘, 공교롭게도 저번 주 설교 말씀이었던 야곱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사기꾼 야곱이 더 이상 자기 꾀로는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불며 매달릴 때, 남자로서의, 인간으로서의 자존심인 허벅지 안쪽을 주님이 치십니다. 그의 자아 (ego)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못 가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모면하기에만 급급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이 모든 열방에게 축복이 되었던 그 믿음의 계보에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저에게도 물어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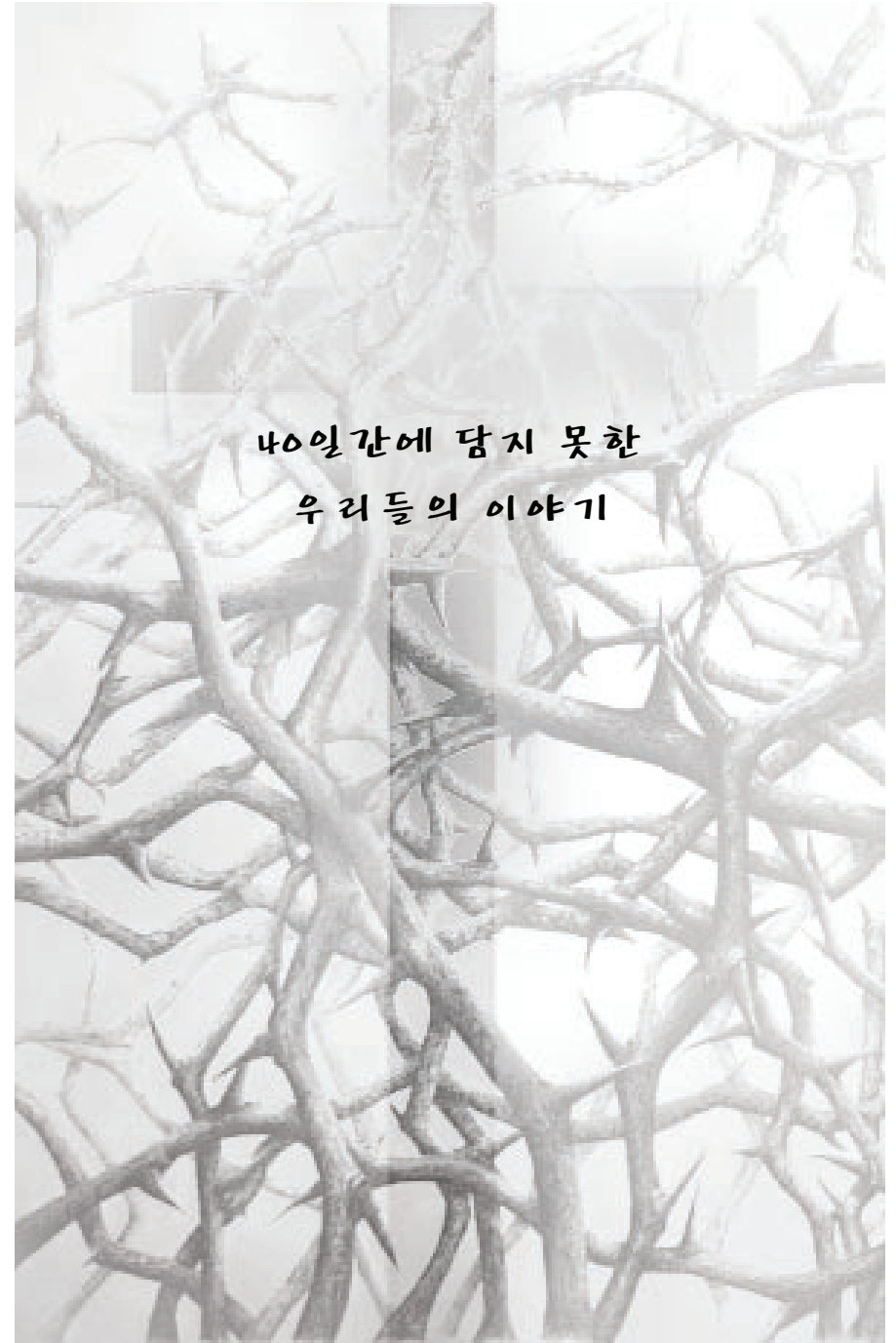
“네 이름이 무엇이냐?”

“주님, 저는 야곱이에요. 사기꾼, 이기적인 사람, 꿈수가 많은 사람,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제가 누군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너는 이제부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씨름하고 상황과 문제로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만 나아오고 내 앞에서 기도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그러면 네가 모든 열방에게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네가 승리하리라.”

오늘 나는 소파에 앉아 이 글을 씁니다. 아직 몇 날 몇 일을 다리를 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기쁘게 합니다. 이런 기회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힘이 아닌 주님의 용서하심과 축복으로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40일만에 담지 못한 우리들의 이야기

감사하는 삶

정은택 전도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16-18)

어릴 때 부터 부모님께 지겹도록 듣던 구절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 절구절인데요, 조금은 뼈뺌하고 ADHD 기질에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는 늘 저 구절을 듣고 읽을 때마다 마음 속에서 그 구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아니, 기쁘지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라고 할 수 있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건 말도 안 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게 말이 되나?' 물론 어떠한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곧바로 그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식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어렸을 때는 괜히 그 구절을 들을 때마다 "아~ 나도 알아요"라는 식으로 반항 아닌 반항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 때보다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 더 그 구절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와이프와 연애하기 전, 소위 말하는 썸타던 시절, 통화했던 내용이 떠오릅니다. 성장 과정에서 돈 맛을 본 적이 없어서 딱히 그것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자랐는데, 실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지난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시며, 이 모진 훈련이 끝난 후 성인이 되었을 때 아주 큰 물질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훈련들은 부자가 되기는 커녕,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아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을 했었죠. 신기하게도 와이프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듣자마자 딱 알겠더군요. 에라이, 우리가 결혼하면 부자되기는 글렀겠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맡기신다는 설교를 꽤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참으로 신기하게도 주변을 바라보게 하는 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에 감사하니까 미래의 '나'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질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나는 현재에 감사할 수 있으니, '너'에게 더 많은 것이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주는 게 감사의 힘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뱉는 고백과 감사를 다른 이들도 내뱉을 수 있도록,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그 원동력의 기초에 감사를 위치시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을 위해 감사를 굳이 명령하신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외부로 향하는 감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더군요. 감사에 젖을 때면 늘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허락해주신 것을 덕분에 잘 살고 있으니, 당신의 성품에 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시지요." 저는 꽤 약은 사람이라, 끝끝내 이런 기도도 덧붙입니다. "물론 저도 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거라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부여하시는 여러 순간을 통해서 한숨과 눈물, 비탄과 원망을 받기도 하시지만, 기어코 기쁨과 감사를 길러내시니,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한 삶의 경험을 나오는 신자분들의 감사고백을 들을 때면 그 진심이 어찌나 느껴지는지, 그 감사가 늘 우리 곁에 맴돌았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곤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감사할 것들을 찾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제목 찾기가 그리 어렵지 않군요. 사순절을 맞이하여 성도분들과 함께 감사를 나눌 수 있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더하셔서 편집해주시고 배포해주시는 분들의 노력에 참 감사합니다.

별빛에 감사하는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 스펀전-

하나님,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빔어주세요. 아멘

My one wish

Deacon Seung Kim

In Disney movie Aladdin, Aladdin finds the magic lamp which when rubbed spews out a genie that can grant the user 3 wishes. Aladdin uses his first wish to become a rich and powerful prince with intention to woo the beautiful Princess Jasmine. He uses his second wish to save himself from a fatal situation that he gets caught in and uses his third and last wish to free the genie from the lamp, an incredibly good deed.

The movie is entertaining, and the first wish depicts what most men would ask for if they had a wish – money, power, and the girl. However, if you stop and think just a little bit, you realize how shallow money, power and girls are. Economic inflation can bring down the value of money. A recession can decrease the value of any purchase you buy. Power can erode over time and even be taken away by someone more hungry. Lust is temporary, and attraction based on lust and look fades. Wishing for wealth, power and love are not horrible wishes but as a Christian I can think of something better - a wish to have a two way communication with god. Very early on, we are indoctrinated with the idea that Jesus is our friend. It is all very comforting but the reality is that it is a bit of a stretch from the truth. God doesn't act like my friend Sam.

I have a good buddy named Sam, whom I meet up every so often. He is a friend that I can call, chat and share my situation. Whatever I share, he provides his perspective and feedback. We laugh and we share our situation that we are dealt and going through. God is not like my buddy, Sam at all. Christianity says that prayer is the way to talk to god. I don't dispute that but oftentimes, a prayer does not feel like a two way communication. It very much feels like a monologue by me. When I belt out my pain in my prayer, I don't necessarily get immediate feedback. I don't necessarily hear direct responses of sympathy. I don't necessarily get a voice of affirmation or confirmation...often just silence. Often I hear nothing but myself. If anything, I get a bit of relief from unloading my trouble to someone other than myself. If this model of communication is an ideal model to imitate with my friends, my friends would not bother to call. They would be frustrated by my lack of response and I would slowly fade away from their contact list.

When atheists bring their case and argue how unrealistic it is to believe in a non-responsive God, I can't help but relate a little. God is definitely not like any human friend that I have. His approach to communicating with us would not be popular with any of my friends.

Imagine for a moment if we had an instant two way communication with God. Someone who acted like a human friend. God who would comfort us immediately when we belt out our pain. God who would give us immediate advice in times of need. God who can show empathy and sympathy. Would wealth, power, and getting the girl really matter? With God whom you can converse with, all of that is achievable, and if by fate, you do not, you can get a direct explanation from God himself as to why He denied you. How comforting life would be if God was just a phone call away? How easily undeniable would God's existence be?

Alas, that isn't how life works. There is no hotline to call to directly ask God and get an instant reply. There is no magic lamp to grant me any wishes, either. It all potentially points to how much I may not need God in my life. Yet, in times of trouble, when I stop praying, when I stop reading the bible, when I turn away from God, and I'm

extremely angry with God, I find myself despondent, and unmotivated. Life becomes mundane. Life becomes hopeless. Life becomes purposeless.

I didn't become a follower of Christ because a burning bush spoke to me. I didn't have a life changing revelation. No beam of holy light shone my face to have Jesus revealed to me. Instead it was a slow progression of Jesus' message seeping into my heart, messages like the following: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 Jeremiah 29:11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it will be opened to you. For everyone who asks receives, and he who seeks finds, and to him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 Matthew 7:7-8

"For I, the Lord your God, hold your right hand; it is I who say to you, 'Fear not, I am the one who helps you' - Isaiah 41:13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Isaiah 40:31

"Jesus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in the new world, when the Son of Man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you who have followed me will also sit 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And everyone who has left houses or brothers or sisters or father or mother or children or lands, for my name's sake, will receive a hundredfold and will inherit eternal life." - 29:19 Matthew

"But he said,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possible with God." - 27:18 Luke

God's message of hope and everlasting life appeals to me. I think back and see how my life spun out and I see various parts where I am at my best when I turned to God and His words. I'm at my worst when I turn my back on him.

Perhaps this is God talking to me in His own way, filling me with His Holy Spirit when I pay attention to God, but it isn't a typical friends' relationship.

If I had one wish and only one, I would ask the genie to grant me the power to have an instant two way dialogue with god. Wouldn't that be something? With such conversation, my faith will hardly waver and my belief will strengthen. I wouldn't have such a roller coaster in my faith when times get tough or when times get good.

평범함의 위대함

정은택 전도사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라디아서 1:11)

가끔 아무 가시적인 열매가 없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몇 몇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보다 훨씬 대단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향력과 카리스마로 대중을 휘어잡으며, 자신들의 말에 따라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역사를 눈으로 보는 지도자들은 그 열매로 인해 계속해서 자기가 나아가는 길에서 일종의 성취감과 동기를 발견할 것이지만, 초라한 삶의 현실, 도저히 바꿀 것 같지 않은 환경 안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대단한 영성가들이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마 성도 한 두 명을 두고 군말 없이 새벽기도나 수요예배를 인도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모순된 게 뭐냐면,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야말로 대인배이고, 대단한 신앙을 가진 영성가라고 평가하면서도 제 내면 깊은 곳에는 그래도 그런 삶보다는 남들에게 많이 인정받고 싶고, 눈에 띄고 싶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나친 자기검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욕망을 발견할 때마다, 바울의 고백을 묵상하곤 합니다.

평범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노력하는 삶은 때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지루한 일상을 지속하다보면 심지어 예배마저 일종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일상을 벗어나고자 궁여지책으로 분주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그 분주함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공허를 깨닫고 싶지 않아 도망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번역하신 메시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 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 주십니다.” (롬 12:1-2, 메시지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의 일이라는데, 사실은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청소년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에 감사하라는 말이 너무나도 쉽고 당연하게 생각하곤 했지만, 요즘은 그 사랑을 받아들임 자체도 사실은 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더욱 잘 기억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부터 잘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앞세워 성급하고 분주하게 행동하기 전에, 우선 내게 주어진 평범함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서 얻는 기쁨보다, 타인의 인정이나 성취로부터 채워지는 일시적 즐거움보다, 하나님 그 자체로 인한 희열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 (2)

안성민 교우

“여호와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2)

주사위를 상상해봅시다. 보이시나요? 숫자를 나타내는 점박이들이 몇 개 보이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육면체를 상상할 때 세계의 면을 상상합니다. 뒤편에 있는 면들은 있을 거라고 믿되, 사실 상상에선 제외됩니다. 그러면 무한적인 하나님을 상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삼차원에서 살면서도, 삼차원 적인 물건을 완전(perfect)하게 상상하는 건 어렵습니다. 더 단순하게 동전을 생각해도, 앞면과 뒷면을 동시에 상상하려면 그냥 두개를 상상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은 그래도 거짓되진 않습니다 - 상상속에서 그 물건을 돌리면, 모든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Robus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아온 정보(정육면체의 세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렸는데 (삼차원 입체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 정보(정육면체의 뒷면이 아닌 무언가)와 합해봐도 결론(삼차원 입체)이 바뀌지 않으면, robust한 결론입니다. 때론 건장한, 강직한이라고 번역이 될 때도 있지만, 굳건함에 뜻이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선, 현재 아는 것에 대한 맹신(정육면체)이 아닌, 모르는 것에 대한 인정과 겸손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우리 앞에 있는 물건을 둘러볼 수 있는 용기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 교회. 영지주의 교회. 반지성주의 교회... 섬김주의 교회. 성서주의 교회. 복음주의 교회. 이 “주의” 교회들의 위험은, 굳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굳건하지 않은 교회에선 “새로움”은 곧 “변질”입니다. 본질적으로 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는 교회가, 다른 어떠한 “주의”에 매달리는 것이 됐을 때, “주의”와 대적하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순간, 교회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섬김, 기도, 찬송, 그리고 성경 자체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일 뿐이 아닌, 우상이 될 수 있고, 교회의 “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주의”됨은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어, 그 뒷면을 채우려는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를 인지하고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서주시옵소서, 아멘.

배부른고민

정은택 전도사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복이 있나니,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3)

요즘 제게는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남들이 보면 배부른 고민일 수도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늘 존재했던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이 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를 통과할 때 만 하더라도 가난과 질병 때문에 꽤 많은 순간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어쭙잡은 뜻이나 품거나 꿈을 꾸고 싶더라도 늘 그럴때마다 움아 매고 있던 환경이 눈에 채여서 스스로를 제한하며 살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빌언덕이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순간들이 꽤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게는 대학교에 입학하자마자 간절히 기도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마음껏 공부하는 환경이 선물로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매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이 오지않을때면 학교기숙사 기도실에 달려가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고 방석 위에서 하나님께 온갖 고민을 토로하고, 쏟아내곤 했는데,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돌아보면 그 때 만큼 감사한 시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기도들의 조각을 하나님께서 잊지않으시고, 그 때 바라던 선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아껴주는 교회에서 사역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다니.....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막상 그렇게 바라던 환경들이 열리니, 이 전에 가질 수 밖에 없었던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려 노력했던 모습이 이 전과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도사로서 참 부끄러운 부분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창 어떻게 늘 하나님의 시선이 거하는 낮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질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배부른 고민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날 저는 이 고민에 대한 실마리를 유스그룹 예배를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스그룹의 예배는 늘 강상철 장로님의 Circle Prayer로 시작하곤 합니다. 그 때 장로님께서서는 유스그룹을 위한 기도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 고통을 늘 언급하시며, 신음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자고 격려하십니다. 하루는 별 생각없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저는 문득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들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환경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생긴 마음에 불과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제 주변에 놓여 있던 환경이 조금 개선되면서, 그런 마음들이 점차 증발해 버린것입니다.

그동안 가져왔던 긍휼/애통, 가난한 마음이 단지 자기 중심성에 근거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되니, 어디에 시선을 두어야 할 줄도 알겠더군요. 만약 나의 관심사와 시선을 나에게서 벗어나 진정으로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에 둔다면, 증발했던 조각들이 여전히 그들을 위한 애통하고 긍휼한 마음, 가난한 마음, 사실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으로 변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웃을 도우면서 그들의 존재와 아픔, 그들을 향한 관심을 통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쓰린 마음을 더욱 더 잘 알수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게 말은 쉬운데, 삶으로 직접 살아내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바쁜바쁜 바쁠수록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향한 긍휼함과 애통함을 가지는 건 더욱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는 나의 시선을 나조차로부터 벗어나기도 쉽지 않기에, 주위를 둘러 보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을 사순절을 통해 함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야만 존재의 가치가 결정되는 세상속에서 잠시나마 '나'에서 벗어나 주변을 돌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기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Giving old things up = Adding new things


Phantom Author 3

The point of giving things up isn't to be reminded of how much we miss them, but rather to be awakened to how much we miss God and long for his life-giving Spirit. This means, of course, that Lent isn't only about giving up things. It's also about adding things, God-things.

- Having given up junk food for a healthy diet, what will you do with the energy you gain?
- Having given up reading magazines, what will you read now?
- Having given up Facebook, to whom will you devote meaningful conversation?
- Having given up lunch, how will you rely on God for the strength of "food from heaven"?
- Having given up TV as a default activity, how will you use that time to cultivate quality family time?
- Having given up isolation, how will you immerse yourself in your community?
- Having given up shopping, will you see those who need clothing in your city?
- Having sacrificed whatever form of selfishness you indulge, how will you meet the needs of others?

The practice of giving something up for Lent is a way of entering into the wilderness with Jesus. Don't worry about whether your sacrifice is a good one. It's not a contest. Just make your aim to know Christ more fully, and trust him to lead you. Seek to replace that thing with devotion to Christ—his Word and his mission. God may lead you to give up and take up more as you go. That's good. Deny yourself, take up your cross, and follow Jesus.

Merciful God, help us let go of our past, that we may turn toward you and live again the life of faith. Help us call out our fear and hatred, our anger and self-pity. Lift the burden they place on our shoulders. Let us draw near to you. Amen.

 보스톤 한인교회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617.739.2663 / www.kcboston.org



편집 : 김한나, 배광현, 이해승, 정유미, 정은아, 윤경문
표지 그림 : 김정선 표지 디자인 : 배광현